



**탈북교이 돕는 평화음악회** = LA 한미음악인협회(단장 최승호)가 LA 코리아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휘 윤인성과 함께 마련한 탈북교이 입양 지원을 위한 평화음악회가 성황리 열렸다. 12일 월트 디즈니홀에서다. 이날 한인들 비롯 백인, 중국계, 일본계 등 6개국 다인종 합창단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해 청중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 “중동 정국 불안정, 선교의 기회로 활용해야”

이슬람 체제 실망한 무슬림에  
 복음이 해답될 수 있어

이집트를 비롯해 시리아, 레바논, 이란 등 중동 국가들에서 지속되고 있는 정국 불안정은 해당 지역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교의 기회로도 인식되고 있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순교자의 목소리(Spokesman for Voice of the Martyrs)의 토드 넬턴 대표는 “중동 지역의 불안정은 이 지역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무슬림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을 넓혀가고 있다”고 밝혔다며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문으로 전하는 미션네트워크뉴스(MNN)가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넬턴 대표는 중동

의 불안정으로 인해 이 지역 기독교인들에게도 고난이 가중되고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우선 순위는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넬턴 대표는 유헤사태나 내전 등의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중동에서 복음전도의 사역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무슬림들이 계속되는 이슬람 체제의 실패에 실망하고 새로운 체제를 찾고 있는 바로 지금이 그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때”임을 기독교인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토드 넬턴 대표는 “많은 무슬림들이 이슬람이 더 이상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고 다른 선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그 다른 선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넓어진 선교의 기회에 관해 “15년 전에는 한 명의 무슬림이 그리스도교로 왔다면, 이제는 수백, 수천의 무슬림들이 그리스도교로 돌아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며 “기독교인들은 이제 단지 우리 안의 소망에 대해 나누기만 해도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때가 왔다”고도 전했다.

토드 넬턴 대표는 끝으로 “지금 이 중동에 복음의 씨앗이 심는 사역의 중대한 시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필요로 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라마단 기간을 맞아 무슬림들을 향한 다양한 사역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 기간 더욱 집중된 기도로 현지의 사역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손현정 기자

## “저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 제2차 크리스천 북한포럼 및 통곡기도회

제2차 크리스천 북한포럼 및 통곡기도회가 7월 16일(화) 와싱턴중앙장로교회(담임 류응렬 목사)에서 시작됐다.

개회예배에서는 박희민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이후 재미 탈북인 조진혜 자매를 비롯해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박선영 전 국회의원, 김인식 목사, 손인식 목사 등이 전체강의를 했다. 강의를 끝날때마다 김인식 목사, 차용호 목사, 정현 목사, 강철홍 목사, 백정우 목사 등이 통곡기도회를 인도했다.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은 “북한은 90년대 초반 공산국가들이 몰락하는 것을 보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2가지 대책을 세웠다. 하나는 외부정보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이었고, 또다른 하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 원칙을 가혹하게 집행하는 것이었다. 그로 인해 경제는 망할 수 밖에 없었고, 핵무기를 고수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북한 정권을 유지케 하는 세력으로는 크게 중국과 한국의 종북세력을 들 수 있다. 종북세력들은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남한도 덩달아 망할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중국의 동북 제4성론, 통미봉남론 등을 확산시켰다. 하지만 이제 한반도의 정세가 변하고 있다. 중국에도 남한중심의 통일이 자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퍼져가고 있고, 한국내에도 스스로 통일을 준비하지는 목소리가 생겨나고 있다”며, “통일이 되면 국내자본 뿐만 아니라 해외자본 그리고 대외적인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선영 전 국회의원은 “미국에서 북한 인권법과 북한 아동 복지법이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됐다”며, “하지만 라오스로 탈출한 북한 아이들 9명이 다시 북송되는 과정을 알게 되면서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던 목소리에 침묵했던 대사관의 처사에 분노할 수 밖에 없었다.

» 11면으로 이어짐  
 주요한 기자

### ‘소중ناس사람들’ 창립자 김수철 목사 소천

구제사역을 펼치는 ‘소중ناس사람들’ 창립자이자 대표인 김수철 목사가 지난 13일 오전 2시 30분에 소천했다.

고 김수철 목사는 그동안 소뇌위축병을 앓아왔다. 고 김수철 목사는 미주성결교회 엘에이지방회장을 지냈으며, 그가 세운 ‘소중ناس사람들’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노숙자



를 돕기 시작해, 한국과 중국, 미얀마, 멕시코, 아이티 등 여러나라의 불우한 이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펼쳤다. 고인의 장례예배는 오는 7월 16일 오후 7시 가주장 의사에서 열렸다.

### 용기장이 미주순회 찬양예배

‘주는 토기장이’ 주 여호와와 나의 힘’ 등 대중적인 CCM으로 사랑 받은 찬양선교단 ‘용기장이’가 오는 21일(주일) 오전 11시 예향선교교회(4323 W. Pico Blvd. LA)에서 미주순회 찬양집회를 인도한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세대를 떠

나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용기장은, “이번 사역을 통해 미주 내 한인 디아스포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며 “함께 찬양하고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213) 281-1196

**Sarang Healthcare Ministries**  
 32년 전통의 주류사회 크리스천 플랜  
 건강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www.saranghealthcare.com 213-986-8119  
 회원단체 CTS AmericaTV GBC CGNTV USA

**ASE 나라정비**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나라 오토 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월~금: 8am~6pm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교역자 10%할인해 드립니다.

# 미주 총신대학교 입학/편입생 모집

미주 총신대학교는 지금까지 34회에 걸쳐 7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순수 교역자 양성을 목표로 개혁주의 신학대학교로서 재외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의 인준신학교입니다. 김근수 총장은 지난 30년이 넘는 동안 한국총신대학교와 한국성서대학교, 칼빈대학교에서 교수하신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본교는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013년 가을학기 개강일시 : 2013년 8월 26일(월) 오후 7시**

- 대학 학과 및 학위과정**  
 전문학사 과정: 여교역학과  
 학사과정: 신학 전공, 선교학 전공, 교회음악, 실용음악 전공, 기독교 교육 전공
-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학과 및 학위과정**  
 신학대학원: M.Div.(목회신학전공) - 학사학위 소지자로 세례교인  
 일반대학원: Th.M. - 신학 전공, 선교학 전공: M.Div. 학위 소지자  
 M.A. - 선교학 전공, 기독교 교육전공 - 학사 학위 소지자  
 M.C.M - 교회 음악, 실용음악 전공 - 학사 학위 소지자
- 박사과정**  
 D. Min. - 목회 경력 3년 이상의 M.Div. 이상 학위 소지자  
 1. 학교입학에 필요한 원서와 서류를 학교 홈페이지(www.chongshinusa.edu)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2. 유학생을 위한 I-20 Form을 발행합니다.  
 3. 각종장학혜택이 있습니다.  
 4. 지역에 따라 타주 또는 타국에서도 통신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본교는 현재 정부부에 등록된 대학으로 연방정부기관인TRACS에 가입신청 중에 있습니다.

총장 김근수 박사

학력  
 미국 남가주 신학대학 Southern California College, B.A.  
 한국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Chong Shin Theological Seminary in Seoul, M.Div.  
 미국 칼빈 신학대학원 신학석사  
 Calvin Theological Seminary in Grand Rapid, Th.M.  
 영국 웨일즈 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  
 Univ. of Wales Graduate School in U.K, Ph.D.

경력  
 한가람교회 담임역임, 현 한음교회 담임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장, 설교대학원장, 대학원장, 부총장역임  
 직전 개혁신학회 회장

**GMS(Global Mission Society) OMTC선교 훈련생 모집**

OMTC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세계선교회의 미주지역 선교훈련원입니다. OMTC에서는 현재 선교사역 중인 자나 선교에 관심 있는 자들을 위한 정규 및 특별과정 선교사 후보생을 모집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MTC수료시 GMS 선교사로 파송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미주총신대학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 School of Theology • School of Christian Education  
 • School of Mission • School of Church Music

**미주총신대학교**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TEL: 213.487.1010 FAX:213.487.3303  
 I-TEL: 070-7019-1011  
 2975 Wilshire Blvd.#300, L.A., CA 90010  
 www.chongshinusa.edu  
 e-mail : info@chongshinusa.edu

# “성령받기 위해선 ‘나’ 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져야”



조종남 박사가 미주성결대에서 열린 '웨슬리신학' 강좌에서 열린 강연을 펼치고 있다.

## 전 서울신대 학장 조종남 박사, 미주성결대서 '웨슬리신학' 강연 펼쳐

미주성결대가 지난 8-12일 전 서울신대 학장 조종남 박사를 주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웨슬리신학) 강좌를 열었다. 11일 저녁 조종남 박사는 '웨슬리 가 본 성화의 과정'을 주제로 열린 강연을 펼치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가리켜 넓은 의미에서 성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것은 크리스천들이 '믿는 것'과 '삶'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은 거룩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박사는 그러면서 "성화는 행위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리고 성화는 중생에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중생한 후에도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면서 "성화는 중생 후 점진적으로 성장하되, 그 과정에 순간적인 요소가 결

합돼 있어 단계가 있다. 중생, 온전한 성화, 절대적 성화, 영화의 단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절대적 성결(완전)은 영화에서 이루어지지만, 죽기 전에도 상대적 의미에서 온전히 성결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조 박사는 거듭난 신자가 성화를 추구해야 할 필요와 근거로, "거듭난 신자 안에 아직도 죄가 있기 때문이며, 내적 갈등과 죄책, 그리고 죄의 지배를 받고, 죄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내적 갈등을 보이는 것은 진지하게 믿음의 길을 가려는 사람에게는 수긍되는 대목"이라면서 "이를 놓고 어떤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바울이 거듭난 이전의 일인지, 아님 거듭난 이후의 일인지 육신각신하기도 한다. 또 중생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성화를 추구해야 하기에 그렇다. 기록해 지려고 노력할 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언덕을 올라갈 때 엑셀을 밟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온전한 성화 곧 신자의 완전의 특성으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 이는 곧 내재적인 죄에서의 씻음과 능력을 받는 것"이라며 "이는 성서적 성결이고 신자의 완전이다. 웨슬리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종남 박사는 1927년 황해도 연백군에서 출생했으며, 초등학교는 황해도와 평양북도에서, 고등학교는 평북 신의주와 경기도 개성에서 마쳤다.

1949년 감리교신학교에 입학함으로써 신학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며, 서울신학교로 학교를 옮긴 후 1956년 서울신학교와 1959년 숭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60년 도미해 애즈베리신학교(Asbury Theological Seminary)에 입학했다. 애즈베리신학교에서는 복음주의적 웨슬리 신학과 신앙 체험의 조화를 배웠고, 졸업할 때는 학교 개교 이래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에모리대학교(Emory University)에서 철학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이어 그는 계속적인 연구 활동을 펼치면서 1987년 미국 아주사 피시픽대학교에서 명예인문학박사학위(H.L.D.), 2001년 애즈베리신학교에서 명예신학박사학위(D.D.)를 받았다.

조 박사는 또 1967년 서울신학대학에서 교수로 부임해 서울신학대학 제3-6, 9대 학장, 대한성서공회 회장, 세계복음주의 신학위원회 위원, 세계복음화 아시아 로잔위원회 회장, 세계복음화 로잔 국제위원회 부회장, 88년 올림픽 선교협의회 회장,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회장, 전국신학대학협의회 이사장, 한국웨슬리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토마스 멩 기자

## 이 4가지 챙기면 “전도하는 교회” 된다

### 척 롤리스 박사, 지도자들에게 지침 제공

교인들 사이에 복음전도의 열정이 끊이지 않는 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일 것이다.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미국 사우스이스턴신학교에서 복음전도와 선교를 가르치고 있는 척 롤리스(Chuck Lawless) 박사는 13일 한 기고를 통해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네 가지 사안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교인들의 교회 안과 밖의 '인간관계'를 점검하라고 했다. 롤리스 박사는 많은 교회의 교인들에게 교회 안과 밖에서 자신들이 신뢰하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만들어보도록 했다. 그 결과 교회

에 오래 다녔을수록 교회 밖에서 진밀함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적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롤리스 박사는 "우리의 복음전도가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는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관계에 있는 비신자들이 우리 곁에 많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회는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재정비의 장소가 되어야

하지, 은퇴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의 관계에만 안주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교회로 이끌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비신자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시각을 깊이 공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다. 롤리스 박사는 "예수님께서서는 영생의 관점에서 우리들의 영혼을 들여다보셨고, 우리의 영적 상황에 대해 함께 슬퍼하셨다"며, 이러한 시각이 교인들이 시각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과 같이, 비신자들을 대할 때 그들을 "목자 없는 양"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그들을 직장 동료, 이웃, 가족, 친구 또는 은행원, 주유소 직원, 미용사, 기술공으로만 보고 있는 것인지

지 못했다.

민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은 그들을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또한, 롤리스 박사는 교회 안에서 간증이 끊이지 않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간증은 복음전도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같은 교인들에게조차 우리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비신자들에게는 더더욱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롤리스 박사는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 있다"며 "교인들이 자신들의 간증을 나눌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고 지도자들에게 조언했다.

끝으로 롤리스 박사는, 복음전도와 관련 없는 행사들에 너무 많은 시간

을 할애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많은 교회들이 거의 일주일에 한번씩은 행사를 열고 있었고, '신실한' 교인들은 그 행사에 참여하도록 권장되고 있었다"며 "이는 교인들이 비신자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롤리스 박사는 교회들에 "행사표를 주기적으로 비우라"며, 꼭 필요한 행사가 아니라면, 그 시간과 인력을 복음전도를 위해 쓸 것을 조언했다.

비신자들을 가정으로 초대하거나, 함께 나들이를 가거나 하는 단순한 시도가 비신자들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노력이 언젠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줄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순현정 기자

천천히 다 둘러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버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었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월드미션대학교는 한인신학교로서 최초로 2013년 4월 18일 ATS 정회원 인준 감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 신(편)입생 모집

신학과 • 기독교 상담학과 • 음악과 • 선교학과

모 집 학 과	재 정 안 내
<p><b>▶ 학사과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서신학과(BABS)</li> <li>기독교 상담학과(BACC)</li> <li>목회학과(M.Div)</li> <li>음악학과(MAM)</li> <li>박사과정</li> <li>목회학과(D.Min / 유학생 1-20 발급)</li> </ul> <p><b>▶ 음악학과(BAM)</b></p> <p><b>▶ 신학과(MAT)</b></p> <p><b>▶ 기독교 상담학과(MACC)</b></p>	<p><b>▶ 단기과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상담 사역자 과정 - 총 18학점 과정(6과목)</li> <li>유아교육 교사 과정 - 총 15학점 과정(가주 자격증)</li> <li>유아교육 원장 과정 - 총 18학점 과정(가주 자격증)</li> </ul> <p>(단기과정은 원격으로 이수할 수 있음)</p> <p><b>▶ 펠 그랜트(Pell Grant)</b></p> <p>펠 그랜트는 본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미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값을 필요가 없음.</p> <p><b>▶ 학생 용자</b></p> <p>학생 용자는 모든(학사/석사/박사) 과정에 가능하며, 졸업 후 낮은 이자로 장기 분할 납부할 수 있음. *많은 학생들이 펠 그랜트와 장기 학생 용자 혜택으로 공부하고 있음.</p>

● 미 군목 장교 지원 ● 미 주류 기독교대학(원) 편·입학 ● 유학생 SEVIS I-20 발급 ● 미 연방정부 학비 지원

**월드미션대학교** 총 장: 송정영 박사 D.Min  
설립자: 임동선 박사 Ph.D., D.Min  
500 Shatto Place, Suite 600,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E-mail: wmuinfo@wmu.edu Website: www.wmu.edu FAX: 213.385.2332

**입학문의**  
213.388.1000 Ext. 106  
E-mail: admissions@wmu.edu  
Website: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가 등록된 미국 대학 인준기관  
ABHE, ABHE, ATS, TRACS  
정회원, 정회원 후보, 정회원

Shatto Pl. 6th St. 월드미션대학교

# “차세대 위한 장학금” 10일까지 5만6700불 모아

## 8월 초까지 장학생 접수·장학금 모금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주자”



남가주교협과 OC교협 관계자들이 연합해 차세대 리더들을 위해 장학금 모금 수어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양 단체 관계자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와 오랜 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가 차세대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차세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로 뜻을 모은 가운데, 지금까지 당초 목표 금액 5만 달러를 상회하는 5만 6700달러의 금액이 모였다.

장학생 신청과 장학금 모금은 오

는 8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주최측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장학생 대상은 남가주 지역의 학교에 다니는 11학년부터 대학교 2학년(2013년 9월 기준) 중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이며, 지난 1년간 성적이 GPA 3.5 이상이어야 한다.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출석자, 한 가

정 수입이 3만 달러 이하일 경우 선발에 우선권이 있다.

전체 장학생은 고등학생 30%, 대학생 70%로 구성돼 학비 부담이 큰 대학생에 비중을 두었으며 성적과 관계없이 일단 저소득층에 20%를 할애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돕는다. 타민족을 위한 비율도 10%가 배정되어 있다. 각 조건이 비슷할 경우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주최 측은 약 50명의 장학생을 모집 중이며, 대학생 36명에게 1000불, 고등학생 14명에게 500불을 수여할 계획이다.

장학생에 지원하고 싶은 학생은 남가주교협 웹사이트(www.theckc.org)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재학증명서, 담임목사 추천서, 성적증명서, 교회 후보, 세금 보고서 등 각종 서류를 준비해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주최 측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 8월 18일 오후 5시에 나성순복음교회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10일까지 남가주교협에서 모금된 장학금은 다음과 같다. 돌로스선교회(황의정 목사) \$1,000, 나성동산교회(한기형 목사) \$500,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 목사) \$5,000, 한길교회(노진준 목사) \$1,000, LA한인침례교회(박성근 목사) \$2,000, 남가주새소망교회(김성민 목사) \$1,000, 안디옥장로교회(지윤성 목사) \$1,500, 주님세운교회(박성규 목사) \$2,000, 미주평안교회(송정명 목사) \$1,000, 풍성한교회(박효우 목사) \$2,000, Little Bean Cafe(헬렌 박) \$300, 거주장사(정영목 목사) \$200, 옥스포드호텔(김영희 권사) \$5,000, 파사데나인(최봉제 집사) \$500, Free Loader(정미숙 집사) \$2,000, 으뜸학원(박종봉 집사) \$500, 매긴나인브릿지(최윤준 집사,정상현 집사) \$1,000, 시온서플라이(최웅진 장로) \$1,000, 크리스천헤럴드(윤우경 사장) \$1,000, Vision21(Angie Kim) \$500, 장영순권사(나성순복음교회) \$500, 나성순복음교회 에녹회 \$500(총 \$29,000).

OC교협에서 모금된 장학금은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 \$10,000, 나침반교회(민경엽 목사) \$7,000, 크리스천헤럴드 즉구시합으로 모아진 장학금 \$3,000, 크리스천헤럴드(윤우경 사장) \$1,000, 좋은소식교회(이호우 목사) \$3,000, 갈릴리새생명교회(민승기 목사) \$2,000, 충만교회(김기동 목사) \$1,200, OC영락교회(김경섭 목사) \$500(총 \$27,700)이다.

장학생·장학금 신청서 보낼 곳: [남가주교협(CKCSC)]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Pay to roder CKCSC [OC교협(CKCOC)] 1200 Lambert Rd. Brea, CA 92821. Pay to order CKCOC

▷문의:(213) 255-1725(양경선 목사), (714) 699-0210(송규식 목사) 토마스 맹 기자

# 목회자 93% 일주일 평균 사역 시간은 오버타임

	2013 Twitter Poll (Full-time Pastors)	2008 LifeWay Research Poll (Part-Time & Full-Time Pastors)
Less than 40 hours	3%	16%
40-49 hours	47%	19%
50-59 hours	40%	30%
60-69 hours	7%	27%
70 hours or more	3%	8%

레이너 박사가 공개한 두 조사의 결과 비교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사역에 돌입하는 출근 시간은 언제이고 퇴근 시간은 언제일까? 한인 교회라면 새벽기도회 시간이 출근 시간일까? 주중 퇴근 시간은 수요일, 금요일에 배를 마치는 시간일까? 전쟁터와 같다는 이민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의 사역을 직장 출퇴근에 비교하는 것이나 그 시간을 묻는 것은 현실과는 다소 동떨



레이너 박사

어진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재미난 통계가 발표됐다.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이자 라이프웨이리서치의 대표인 톰 레이너 박사가 트위터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교회를 섬기는 풀타임 목회자의 87%가 설교 준비 시간을 포함해 한 주에 40-59시간 사역하고 있었다. 60시간 이상 사역하는 목회자도 10%나 됐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르면, 주당 근무시간은 보통 40시간으로 규정되며 이 이상일 경우 오버타임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목회자 가운데 40시

간 내지는 그 이하로 사역하는 풀타임 목회자는 고작 3%였다. 즉 97%의 목회자가 오버타임으로 사역하고 있다는 말이다.

레이너 박사는 “평범하게 지나가는 주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주간도 있어서 회의, 병원 심방, 결혼식 주례, 장례식, 성도와의 면담 등이 생기면 주당 80시간에 이르기까지도 말했다.

그는 “내가 섬기는 라이프웨이리서치는 전문 조사 기관이지만 이 트위터 조사는 아주 비공식적이다”라는 단서를 달며 5년 전 라이프웨이리

서치가 수행했던 과학적 조사 결과를 대조하기도 했다.

2008년 라이프웨이리서치는 풀타임과 파트타임 목회자를 모두 포함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 당시에도 조사에 응한 목회자들의 평균 사역 시간은 파트타임을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50시간이었다. 일부 목회자들은 설교 준비 시간을 여기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 준비 시간까지 사역 시간에 포함하면 평균 50시간을 훌쩍 뛰어 넘게 된다.

이번 트위터 조사에서 40시간 이하 사역한다는 목회자가 3%였지만 2008년에는 무려 16%나 됐다. 40시간 이하 사역한다는 목회자 대다수가 파트타임 목회자일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레이너 박사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자신이 한 주에 몇 시간 사역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면서 “사실 목회라는 것은 주7일 하루 24시간 비상대기조와 같기 때문”이라 전했다.

김준형 기자

- 시온마켓 내 -

## 치우차우만두

• 찐빵 • 고기만두 • 김치만두  
• 야채만두 • 물만두 •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세탁합니다.

**CHIU CHAU MANDOO**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GED반 개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 “최고인 복음도 광고해야” 어떻게? “성도의 삶으로”

대표적 美 차세대 목회자 스티븐 퍼틱 ‘삶으로 복음 드러내야’



엘리베이션교회에서 열린 전도집회 모습.

“복음이라는 가장 위대한 메시지는 가장 훌륭한 광고(advertisement)를 필요로 합니다.”

미국에서 차세대 복음주의 목회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스티븐 퍼틱(Steven Furtick) 목사는 최근 이같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 펼쳐야 할 ‘광고’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스티븐 퍼틱 목사는 아웃리치 매거진이 매년 선정하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100곳’ 중 하나인 엘리베이션(Elevation) 교회의 담임으로, 그의 목회 아래 이 교회는 7년만에 교인 수 1만2000명 이상의 교회로 성장했다. 스티븐 퍼틱 목사는 유명한 복음주의 강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며, 차세대 기독교 지도자로 주목받고 있다.

퍼틱 목사는 최근 미국 교회성장 관련 전문지인 아웃리치 매거진(Outreach Magazine)에 기고한 글에서 이 광고수단은 다름 아닌 “교인들의 삶”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예수님과 형편없는 광고(Jesus and Bad Advertisement)’라는 기고문의 제목에서 이미 짐작할 수 있듯, 퍼틱 목사는 오늘날 교인들의 삶은 항상 복음에 걸맞는 훌륭한 광고가 되고 있지는 못하다고 지적했다.

퍼틱 목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위대하다’는 우리의 메시지를 듣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그저 그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 안의 소망과 기쁨에 대해 그다지 알고 싶어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요컨대 복음을 알리는 주체가 되어야 할 교인들이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지 못할 때 ‘교회는 광고에 실패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퍼틱 목사는 오늘날 교회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자 개인적



엘리베이션 교회의 스티븐 퍼틱 목사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 중에 “깨끗한 화장실”이라는 광고 문구에 이끌려 한 주유소를 찾았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고, 반대로 아무 광고도 없었지만 그들이 찾은 호텔은 화장실이 매우 깨끗해 놀란 경험이 있었다. 이에 그의 아들은 “왜 어떤 화장실들은 깨끗하지 않으면서도 깨끗하다고 말하는데, 또 어떤 화장실들은 깨끗하면서도 깨끗하다고 말하지 않나요?”라고 물었다.

교회 역시 위대한 것을 가졌지만 이를 제대로 알리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 퍼틱 목사가 비유하는 핵심이다.

퍼틱 목사는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곤 한다. 이 말은 참으로 맞는 말이지만,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것을 줄 수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어떻게 ‘광고’해야 하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회가 지향해야 할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바람직한 광고의 형태는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최대의 잠재력을 삶으로 실현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퍼틱 목사는 교인들이 그들의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라고 할 때 주의할 것은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가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훌륭한 분이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분을 세상에 훌륭히 드러내기 원하신다”며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을 우리 안에 지녔는지 세상이 모르게 내버려 두지 말자”고 당부했다. 손현정 기자

# 살롬장애인선교회 ‘휠체어 사랑’ 금년엔 ‘아프리카 대륙’

‘부르키나 파소’의 장애인 도움 예정



살롬장애인선교회가 14일 ‘휠체어 사랑이야기’ 콘서트 무대를 선보였다.

살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가 제 10회 선교기금마련을 위한 콘서트 ‘휠체어 사랑이야기’를 14일 오후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개최했다.

박모세 목사는 “하나님께서 본선교회로 하여금 지난 14년간 총 8개국에 26차에 걸쳐 약 4만2000명의 해외 장애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셨다”며 “특히 올해 선교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아프리카 대륙으로 진출하게 됐다. 이번 기금마련 행사는 27차 사업으로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인 부르키나 파소에서 장애인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애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과 물질로 동참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콘서트에서는 유영기 목사(이사장)가 말씀을 전했다. 피아노 2중주(박선규 교수, 박성연), 소프라노 최정원 씨의 독창에 이어, 남가주농악교회 수화찬양팀의 수

화찬양, 살롬장애인선교회 SDM 찬양팀의 특별찬양, 소노로스 싱어스의 남성중창, 박트리오의 피아노 3중주 등 다채로운 순서가 마련됐으며, 하나같이 수준높은 아름다운 무대로 꾸며져 청중으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동선교회는 26차에 걸쳐 지금까지 휠체어 7,867대, 기타 의료보조기구 약 3만4330점을 선적해 약 4만2000명의 해외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역을 펼쳐왔다.

살롬장애인선교회 박모세 목사는 1989년 8월 불의의 교통사고로 자녀를 모두 잃고 아내는 전신마비 장애인이 된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소명을 받고 목회자가 됐다. 18년 전 도미한 그는 신체적 조건 외에도 공공장소에 나가는 것을 꺼려 숨어 지내는 장애인을 적극 찾아내서 섬기는 ‘서치 앤 서브(Search & Serve)’를 모토로 살롬장애인선교회를 세웠다.

토마스 멩 기자

#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지도자도 3대 세습

북한 김일성 일가가 김정일-김정은으로 3대 왕좌 세습을 한 데 이어,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 최고 지도자 자리도 3대 세습이 이뤄졌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에 따르면 조그련은 새 중앙위원장에 강

명철(53)을 선출했다고 한다. 강명철 신임 위원장은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모교인 남산고등학교와 김일성 종합대를 각각 졸업했으며, 최근까지 조그련 평양시위원장을 맡아왔다.

강명철 위원장에게 위원장직을 넘

겨준 이는 강영섭으로, 강명철 위원장의 아버지이다.

강명철 위원장은 조그련의 전신인 북한기독교연맹 위원장을 지낸 강양욱 전 부주석의 아들이다. 강양욱은 김일성의 외할아버지 강돈욱과 6촌

간이다.

조그련은 북한이 자국 내 유일한 공식 기독교단체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고 기독교인들이 발각되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고 있다.

북한인권 관계자들은 “조그련은 사실상 남한과의 협상을 위해 만든 임의단체이고, ‘종교의 자유’를 선전하기 위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초스피드 다이어트** 1주에 9파운드~25파운드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대머리**

**치질** 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하는 증상

**자궁물혹이나 자궁근종**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하는 분

배는 속변와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Tel: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기외 임대료) 평일시간: 월~금, 10시 ~ 5시 / 토 10시 ~ 2시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 장재효 목사 초청 영성집회

## 집회일정

6월 30일 (주일) 남가주 리더 교회 행 19:1-20 에베소 선교의 성령역사  
7월 7일 (주일) 예향선교회 1부 행9:32-42 전도를 위한 표적들  
2부 왕하 4:1-7 해결위한 말씀 실천의 믿음

7월 10일 (수) 미주복음방송, 기독교일보 인터뷰  
7월 14일 (주일) 성재복음선교회 고전 2:6-16 세상지혜와 하나님 지혜의 차이

7월 19-21 일(금-주일) 남가주 리더 교회  
19일 (금) 행10:38-48 성령받게 하심은  
20일 (토) 행9:32-42 사역위한 은사와 영력  
21일 (주일) 갈5:16-26 성령계 쓰임받으면

7월 24일 (수) 엠마오 장로교회 행 16:6-15 믿어지는 믿음을  
7월 26일 (금) 작은자의 교회 눅10:17-24 예수께서 기뻐하신 성령선교

## 약력소개

- 총회신학대학원 졸업
- Faith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과정 이수
-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선교신학연구 과정 이수
- Trinity Theological Seminary 신학박사과정 이수
- Faith Evangelical Seminary 명예박사
-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 성령세계복음화협의회 총재 역임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역임
- 전국기독교 총 연합회 총재
- 성은동신(기도원, 경로원, 수양관) 원장
-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주 관 : 국제성은복음선교회 (International Holy Grace Gospel Mission)

문 의 : T. 213 718 1512

후 원 : 남가주 리더 교회, 예향선교회, 미주복음방송, 기독교일보, 성재복음선교회, 리더 교회, 엠마오 장로교회, 작은자의 교회

# 성도의 생활원리

## 요한1서 1:1-8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호

성도란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아 성령의 계시와 감동으로 자기의 영적인 상태와 지옥 형벌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를 믿어지게 하심으로 회개하고 죄와 지옥형벌의 저주를 벗어난 사람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하늘소망을 목적으로 새출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자기 자녀로 받아 주시는 표시로 그의 죄를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십니다. 영어로는 크리스천(Christian)이라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생활 원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체로 쓰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과 조건으로 살리시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가 로마에서 쫓겨와 고린도에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들의 기술이나 노력만으로 그렇게 빨리 사업을 일으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업으로 열심을 썼고 결국 그 사업장은 하나님께서 경영을 하시게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업을 크게 일으켜 주심으로 그 두 내외는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사도바울의 유럽과 아시아 선교 뒷바라지를 하기에 붙들어 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가상적인 생각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회개케 하시고, 거둬내게 하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쓰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세우신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살리시며, 붙들어 쓰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생활 원리입니다.

돈을 벌어 불의와 타협하고 죄악을 저질러 가면서 수입만 목적으로 사는 것은 저주를 재촉하는 것이며, 심판과 형벌을 장만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와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목자인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고 그 목자의 인도를 받는 한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계시와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 각 사람에게 일을 시킬 때에 성령 받은 사람은 자청하여 일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목사님이 우리의 형편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잘 아시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하라고 한다면 불평합니다. 이들은 자기 기준이고 자기 입장 중심입니다. 아볼로라는 대(大)학자도 아무리 세상 공부를 많이 했어도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강의를 했지만 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이고 자기를 나타냄으로 자기가 대접받고 영광 받고 강사로 행하는 목적으로 살아오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를 통해 하룻밤에 진리를 깨달아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인생이 하나님을 중심삼는 인생으로 바뀌고 행하는 목적으로 살았던 인생이 드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기로 하고 선교사로 나가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볼로는 자기의 지식을 팔아먹는 장사로 얻어지는 수입으로 사

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재산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도 아니고, 회개하고 성령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없는 생활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29-30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이 먹어 살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생활원리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간 것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이끌리어 예수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나라를 상속 받을 자격이 된 사람입니다.

타락이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그 형상을 파괴시켜 기준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성을 잃고 미쳐버린 것입니다.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본래 제 정신은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는 귀신이 사키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다 보면 인격적으로는 귀신에게 휘둘리며 사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진리도, 구원도 모르고 하늘나라도 모르며 분별의 혼돈이 생겨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으로 죄를 짓고 살게됩니다. 절대로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데 그것들에 사로잡힌 자는 미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본문 1절에 있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헬라어로는 호로고스라고 합니다. 호로고스란 인격적인 말씀을 뜻합니다. 그 말씀은 선포되는 즉시 반드시 이뤄지는 인격적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로는 선포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을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바 된 자녀" (요한1서 1:2)

요한복음 14:6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했습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 갈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때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요 14:8)했을 때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는 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요14:9-10) 하셨습니다.

이는 아버지 아들 성령은 달라도 몸은 한 분,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무엇 하시는 분인가를 아들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증거해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내신바 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생명 전달을 위해 선포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10:17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 회개하고 거듭나서 성령이 인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의 생명소망은 말씀에서 전달되어져 온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것은 구원 얻은 성도들과 사귀를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사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죽은 심령에도 전달되어지기 위한 목적으로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귀는 사람들끼리 사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더불어 사귀자는 것입니다.

### 하나님의 빛 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구원 얻는 성도라고 하면서 빛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어둠을 배경으로 산다면 그 인생은 거짓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지나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1서 6-7)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빛을 온 세상에 비추면서 어둠을 물리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빛과 어둠은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빛 가운데 행하지 아

니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죄악을 일삼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두운 배경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은 구원 얻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잘 믿는 척하고 생활하는 행동은 완전히 어둠의 자식처럼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로마서 3:23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되어있고 로마서3:10-12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귀어 계속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생에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거짓말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믿음직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항상 하나님과 나와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붙어사는 것이 성도의 생활원리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영생의 소망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아무리 힘들고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명으로 계속 살리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힘든 부탁이라도 달게 받아서 기쁨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이 세워지고 그 계획에 따른 기대만큼 관심도 더 깊어지고 대접도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살고 거역하면 죽는 것입니다. 이사야1:19-20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나니 여호와와 나의 입을 말씀이라" 살고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말씀순종하는 믿음 생활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 성은교회 장재호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 선교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10분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크리스천투데이	7면 설교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경북기독신문	3면 설교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3시반 / 동부 오후 6시반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I190 LA 미주 복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AMI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기독교일보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AMI590 사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20분~11시50분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b>성은교회 당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정중경 총회장. 비전목회연구원 원장.</b> <b>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목회 회장.</b>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호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b>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b>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 2013 미주기독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1-20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niv.org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cu.us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길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충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ua.edu  
 www.chongshinusua.edu

**미주성결대학교**

SEVIS I-20 발행  
 각종 장학제도  
 신학, 상담학, 선교학 전공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802  
 www.aeui.us



#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부설 Sports Mission College 스포츠 미션 대학교

미주 대한신학대학교는 1948년에 설립된 한국의 대한신학대학교(현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와 대신교단의 인준을 받아 미주교역자 양성 기관으로 1995년 5월 30일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등록하고 주정부교육국의 학사, 석사, 목회학 박사, 신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신학대학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본 대학에서는 신학 공부를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자체 발행하여 수여하는 스포츠 학과 **Teaching License**를 취득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학과

- 대학부 : 신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대학원 : 목회학 석사 (3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선교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선교학 석사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Teaching License 수여 과목 : 골프, 테니스, 체조, 태권도, 승마



\*\*차별화된 전문인 선교와 목회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310-598-0746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mr\\_jacob601@hotmail.com](mailto:mr_jacob601@hotmail.com)
- 주 소 : 3128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05



##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셜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http://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 프로 골프 선수 지망생 모집

- 현재 타수가 보기 플레이(90타)이하
- 대상 : 7세~11세 (1~2명)
- 코리아타운내 픽업가능
- 문의 : 310.598.0746/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주니어 티칭 전문)



## 두 종류의 집행

법집행(Law enforcement)은 법규를 어기는 사람이 반드시 합당한 벌을 받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주로 범법 행위를 찾아내는 순찰대나 감시카메라에 의해서 드러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은혜의 집행(Grace enforcement)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

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한 하나님의 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피하게 합니다. 이것은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합니다 (요 10:10).

법집행은 대개 법정과 감옥과 관

련이 있지만 은혜의 집행은 하나님의 긍휼과 참 자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제도 아래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조이헬로교회  
박광철 목사

##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인도 캘커타(Calcutta)에 가면 "반얀나무"(Banyan Tree)라는 아주 요상하고 정신 사납게 생긴 식물이 있습니다. 둘레가 오백 미터 정도 되는 넓은 숲 속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과연, 그 숲 속에서 반얀나무를 쉽게 찾을 수 있을까?" 걱정하며 숲으로 다가가입니다. 그런데 괜한 걱정입니다. 놀랍게도, 숲 전체가 한 그루의 "반얀나무"입니다. 딱 한 그루의 나무가 거대한 숲을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한 몸통이에서 그런 거대한 푸른 숲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거대한 신비"입니다. 그 비밀은 뿌리와 가지의 연관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반얀나무는 거대한 몸통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개의 나뭇가지들을 하나로 얼키설키 엮어서 또 다른 뿌리들을 만들어냅니다. 옛가락처럼 늘어진 가지 덩어리들이 뿌리로 탈바꿈하면서 여기저기에 땅을 뚫고 든든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나무를 받쳐주는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다른 가지들을 만들어 새로운 공간으로 뻗어 나아갑니다



김 세 환 목사  
LA연합감리교회

란한 환경만을 탓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즐비한 세상 속에서 반얀나무는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큰 스승입니다. 속 시원하게 자기표현도 못하고, 그렇다고 다른 곳으로 도망치지도 못하는 미련한 존재이지만, 자신을 어려운 환경에 잘 적응시켜 숲 전체를 바꾸어가는 반얀 나무를 볼 때마다 마음 깊은 찬사를 보내게 됩니다.

세상 탓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지도 않습니다. 묵묵히 세상을 바꾸어가는 그들은 말 그대로 영험한 존재들입니다. 하늘로 치솟는 가지를 뿌리로 바꾸어 땅 속에 묻는 "희생"도 할 줄 알고, 연약한 가지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서로서로를 끌어안는 "지혜"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힘을 합쳐 미지로 뻗어갈 줄 아는 "용기"도 있고, 작은 움직임들을 끊임 없이 만들어가는 "인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푸르디 푸른 숲을 만들어 세상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반얀나무!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The Rainbow

무지개

William Wordsworth

My heart leaps up when I behold  
A rainbow in the sky:  
So was it when my life began;  
So is it now I am a man;  
So be it when I shall grow old,  
Or let me die!

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  
And I could wish my days to be  
Bound each to each by natural piety!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가슴 설레느니

나 어린 시절에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  
나 늙어진 뒤에도 제발 그랬으면  
아니면 나로 하여금 죽도록 하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노니 나의 하루하루가  
자연을 경외함으로 이어져가는 것  
이요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William Wordsworth, 1770-1850)는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이다. 많은 영국 낭만주의 시인이 요절한 반면, 그는 장수하여

1843년, 73세의 나이에 계관 시인이 되었다. 자연 속에 묻혀 살면서도 시인으로서 크나큰 명성을 얻었으며 자연 속에서 자연을 노래한 자연시인이 라고 할 수 있다. 워즈워드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자연과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에 대한 예찬을 하면서 또한 인간을 배제시키지 않고 오히려 자연과 인간과의 융합을 통해서 그의 시세계를 형성해 나갔다. 워즈워드의 작품으로는 시집 《서정 가요집》, 《루시의 노래》, 《서곡》, 《대륙 여행의 추억》 등이 있다.

## Three-Level English Education <3단계 영어교육>

### English (초급 영어)

▷John: May I help you, Maria?  
마리아씨,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까요?  
▷Maria: Yes, I want to buy a new jacket.  
네, 재킷 하나 사려고 합니다.  
▷John: This store has a good selection of Jackets.  
이 상점은 재킷 구입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Maria: Very good! Let's get in and buy a jacket.  
네, 좋네요. (안에) 들어가 재킷 하나를 삽시다.  
▷John: What color do you like?  
어떤 색을 좋아하나요?  
▷Maria: I like blue.  
전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John: Here it is. Try it on. It fits on you perfectly.  
여기 있습니다. 한번 입어 보세요. 당신에게 잘 어울리네요.  
▷Maria: I will buy this one.  
▷Thank your very much for your

help.  
도와줘서 고마워요.  
▷John: You are welcome.  
천만에요.  
▷Enjoy with your new jacket.  
새 재킷 잘 입으세요.

### English (중급 영어)

Finally they asked, "Who are you then? We have to give an answer to the religious leaders who sent us. Tell us who you are!" John answered in the words of the prophet Isaiah. "I am only the voice of someone, shouting in the desert: Make a straight path for the Lord to travel!" (John 1: 22-23).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주님을 위하여 길을 곧게 만

들어라' 하고 외치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1:22-23>

### English (고급 영어)

The Divine Comedy (La Divina Commedia in Italian) is an epic poem written by Dante Alighieri between. It is considered the prominent work of Italian literature. It is known as one of the greatest works of world literature.

Divine Comedy is divided into three parts: (1) Inferno (Hell); (2) Purgatorio (Purgatory); and (3) Paradiso (Paradise).

신곡은 아리기에리 단테가 쓴 서사시다. 신곡은 이탈리아 문학의 우수한 작품으로 사료된다. 그것은 세계 문학 작품 중에서 가장 위대한 문학 작품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신곡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지옥편 (2)연옥편 그리고 (3)낙원편으로 되어 있다.

자료 제공  
아메리칸침례대학 배효식 교수

보험/은퇴/학자금/재정설계  
한솔종합보험(주)

완벽한 노후준비를

Hansol Financial & Insurance Marketing, Inc.

# 메디케어 세미나 &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

**장소** 송명재 내과 플러튼 병원

Tel. (714) 626-0700 / 한솔 담당자 직통 (213) 479-0066  
1401 S. Brookhurst Rd. #100, Fullerton, CA 92833

**일시** 7월 20일 (토) 오전 11:00 ~ 오후 3:00

##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 내역

- 오전 11:00-오후 12:00 골다공증 검사 및 Vital Check, 혈당검사, 소변검사 (송명재 내과)
- 오전 11:00-오후 01:30 뇌졸중 검사 (대한 프로스펙트)
- 오후 01:30-오후 02:30 메디케어 세미나 및 개별상담 (한솔종합보험)
- 오후 02:00-오후 03:00 검사결과 무료 진단 및 상담 (송명재 박사님)

## 대상

1.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Medi-Cal) 혜택을 같이 받고 계신분 (Full Dual-Eligible Beneficiary)
2. 올해 1948년생으로서 만 65세가 되시는 분 (파트 A, B 신청 도와드립니다)
3. HMO 플랜에 가입되어있으나, 당뇨, 심장질환 및 신장투석 등으로 의료 혜택에 문제가 있으신 분
4. 처방약 보험이 있으나, 처방약 지불액이 부담되시는 분 (약 종류가 5가지 이상 이면 검토 대상)

금년 3월, 정부에서 발표된 "Cal MediConnect Program" (칼 메디컨넥션)은 현재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Medi-Cal) 혜택을 동시에 받고 계신분 (Full Dual-Eligible Beneficiary) 을 대상으로 2014년 1월 부터 시행되는 정부정책입니다. 금년 10월 부터 개별 통보되는 이 정책은 추진하는 방법이 다소 강제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한솔종합보험에서는 송명재 내과와 대한 프로스펙트 의사협회와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칼 메디컨넥션에 관련된 세미나와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디 많은 시니어분께서 오셔서 도움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미리 **전화 예약**을 받습니다.

## 직원 모집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메디케어 및 오바마케어 관련 보험인 모집합니다. 보험 전문인으로써 새로 시작하고 싶으신 분이나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모시고 싶습니다. 스페니쉬 하시는 분은 대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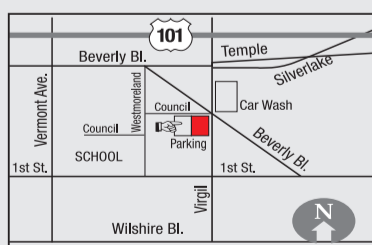
이력서를 e-mail로  
(bartcho0928@gmail.com)  
보내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한솔보험 시니어부  
(213)487-4900  
(213)479-0066

## 한솔종합보험 메디케어 세미나 및 개별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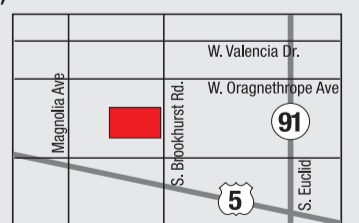
### LA 지역

**장 소:** 한솔종합보험 시니어부서  
**연락처:** 대표전화 (213) 487-4900  
담당자 직통 (213) 479-0066  
3598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04  
**일 시:** 8월 3일 (토요일)  
오전 9:30~오전 11:30



### Fullerton 지역

**장 소:** 송명재 내과 플러튼 병원  
**연락처:** 전화 (714) 626-0700  
담당자 직통 (213) 479-0066  
1401 S. Brookhurst Rd. #100,  
Fullerton, CA 92833  
**일 시:** 8월 3일 (토요일)  
오후 01:30 ~ 오후 03:00



**한솔종합보험 시니어부서**    **연락처 대표전화 (213) 487-4900**  
**담당자 직통 (213) 479-0066**  
3598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04

# 비블리컬신학교, 신학대학원 특화 영어 학습 프로그램 '화제'

### 3단계 ACS 과정 통해 대학원 과정에 필요한 배경지식 습득에 도움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비블리컬신학교(Biblical Theological Seminary)가 일반 ESL과정과는 차별화된 신학대학원 특화 영어 학습 프로그램인 ACS(Advanced Cultural Studies, 구 ESLPlus) 과정을 제공하고 있어 신학 유학을 꿈꾸는 학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ACS 과정은 미국 신학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 영어코스를 통해 대학원 과정에 필요한 배경지식을 선행적으로 숙지하도록 디자인됐다.

총 3단계(12주/단계)로 구성된 ACS 과정은 토플 성적에 따라, Level1부터 Level3까지 배정이 되며, Level3는 2+2로 ACS의 과목 2과목과 본과 과목 2과목을 병행해서 수강한다. 각 단계에서는 >대학원 과정 영어교육 >미국대학 필수과정 교육 >신학영어 교육 >미국교회 문화체험 교육 >본과 수업 연계교육 등 신학에 대한 개론뿐 아니라, 미국의 역사나 철학, 문화에 대해 배우는 시간들도 포함돼 있다.

이 프로그램의 디렉터 오창훈 교수는 "현재 미국 내에는 한국인들의 입학 허용하고 있는 신학대학, 대학원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예비 신학생들은 영어의 장벽 앞에 자신의 꿈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개설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 유학생들이 대학원 수업의 상당부분을 놓치는 원인 중의 하나는 영어문제가 아닌, 미국의 기본 교육 시스템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사전에 교육하기 위해 프로그램이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또 "대부분의 한국인 유학생들이 단순히 영어뿐 아니라 미국

문화에 대한 부적응 문제 등으로 대학원 수업 자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과정은 이런 유학생들을 위해 1년여의 숙성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공백을 메우고 보다 효율적으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라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또 ACS 과정 학생들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배려하고 있다. 물론 기숙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 교회와 한인교회들의 연계로 미국인 가정이나 한국인 가정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홈스테이를 할 수도 있다. 지원자격은 토플 점수에 따라, 단계

별 지원 가능하다. 영어권 국가에서 1년 이상 학습한 경우에는 특별전형도 가능하다. 연계 취득 가능 학위는 M.Div(목회학 석사)를 비롯하여, MA 과정의 신학과 연관된 각 학문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 가능하며, 2013년부터는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D.Min 과정이 허가되어 목회학 박사도 취득이 가능하다. 수업료는 단계당 2,650달러다.

원서접수는 우편(주소: 200 North Main Street, Hatfield, PA 19440)으로 할 수 있고, 이밖에 자세한 문의는 오창훈 교수에게 이메일(coh@biblical.edu)이나 전화(267-872-8200)로 하면 된다.



장향희 목사가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신유축복대성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 장향희 목사 신유집회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가 지난 11-14일 장향희 목사(일산 든든한교회)를 강사로 초청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자'라는 주제로 신유 축복 대성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첫날부터 원근 각지에서 많은 교인들이 참석해 성령의 충만과 병의 치유를 사모하며 집회에 임했다. 이 기간 중 신유 은사를 갈망하는 성도들은 기도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장향희 목사는 14일 주일예배 설교에서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은 주님께 다 책임져 주신다. 노아의 홍수 때도 노아의 식구들은 다 살았다"면서 "세상이 망하고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믿는다. 예수를 내 안에 가득 채워야 한다. 예수 충만은 곧 성령 충만이다"고 말했다.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

**웨스턴+3가에 있는 웨스턴 빌리지 센터로 이전했습니다**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 컬러 작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주세요)

편리한 위치 -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새로운 장소에서 보다 더 편리하게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마이스타일 미용실은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버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헤어 컬러

**\$30 up \$10 up**

\* 단, 컬러만 하시면 \$30.0

매직 스테이트

**\$100 up**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9:00 AM ~ 10:00 PM  
**Tel: 213-739-1022**

## 우주과학자 정재훈 장로, 자랑스러운 한국인상 수상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참사 이후 폭발 원인을 분석해 핵심 가열장치를 개발하고, 화성에 처음 착륙한 '소너저' 탐사선의 핵심 설비를 개발한 데이코 우주개발사 대표 정재훈 장로(66)가 미주동포후원재단(이사장 대행 최용원)이 선정하는 제8회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수상자로 선정됐다.

미주동포후원재단은 "세계적인 우주과학자 정재훈 박사는 미 우주 항공 기술 분야에 공헌해 한국인의 긍지를 드높였고, 한인 2세, 3세들에게 자긍심과 용기를 북돋았다"며 선정 이유를 전했다.

정재훈 장로는 오랜지카운터타인교회(담임 남성수 목사) 장로로 1986년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참사의 원인을 개선, 우주왕복선이 정상 비행을 할 수 있는 핵심 가열장치를 개발해 세계 과학인의 자존심을 되찾게 하여 한국인의 긍지와 조국의 국위도 선양했다.

또 2003년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의 참사 원인이었던 외부연료탱크의 결빙방지장치를 개발하여 2005년 7월 26일 디스커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에 기여함으로써 미항공 우주국으로부터 다시 한번 더 그 공로를 인정

받았다.

2004년 1월에는 화성표면에 성공적으로 착륙한 탐사선 스프리트호와 오퍼튜니티호의 핵심 부품으로 화씨 영하 2백도 안팎의 극저온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극저온신경조직 및 1562종류의 열장치를 개발해 세계적인 우주과학자로 주목받았다.

현재 전 세계 자유진영에서 발사되는 95%의 위성에는 데이코사가 개발한 열 제어 장치를 장착하지 않고는 발사할 수 없게 되어있을 정도로 정 박사는 과학계의 명성을 얻고 있다.

또 정 박사는 2008년, 우주 정거장에 설치된 캐나다 로보팍 텍스터의 내부 신경조직 전체를 개발해 미국과 캐나다 우주국으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재훈 박사는 기업의 경영인으로써 우주 항공국등과의 최고급 행정과 최첨단의 연구를 하면서도 아내 정정숙 권사와 함께 신학을 공부하기도 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정재훈 장로

## "쉬운 전도 되는 전도" 미주예심대학 제3기 졸업식



미주예심대학 제3기 졸업생들이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쉬운 전도, 되는 전도, 불신자도 좋아하는 전도 법"에 대해 강의하는 미주예심전도대학(학장 박용덕 목사) 제3기 졸업식이 8일 오전 남가주빛내리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졸업생 21명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한 박용덕 목사는 "날마다의 영성(행5:42)"으로 반복과 집중, 지속과 도전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

한 일꾼으로 서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미주예심전도대학은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남가주빛내리교회에서 진행되며, 15일부터 제 4기가 시작된다. 특히 15일 오전에는 일일 공개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문의: (714) 401-9874



故 김수철 목사 추모의 글

들에 핀 한 송이 백합꽃



이정근 원로목사 유니온교회

매를 맺었습니다. 제가 은퇴 후에 한국에 머물며 서울신대학교에서 강의할 때였습니다. 유니온교회 출신으로 한국의 공군사관학교 교수를 지낸 오필환 목사(행정학 박사) 부부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뜻을 밝혀 왔습니다. 목사안수 기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수철 목사님에게 연락하여 서울역 근처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선교회에 점심 식사 제공을 주선했습니다. 200여명이 몰려와서 따뜻한 사랑을 담은 음식을 제공받았습니다.

그 때에 이 사람도 <소중한 사람들> 선교회장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만 쉽지 않은 일이나 십자가를 지신 김수철 목사님이기엔 너무나 해낼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 사람의 마음으로는 무척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찌 다 헤아리겠습니까. 김수철 목사님은 갔으나 그의 헌신적인 사역으로써 지금도 우리들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참조. 히 11:4).

“김수철 형제는 영혼 구원에 헌신하여 오던 중, 특히 굶주리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먹을 것을 넉넉히 제공함으로,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의 빛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크게 돌렸으므로 이 상패를 수여함.”

김수철 목사님께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받으실 상장의 내용이 이와 같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실로, 김수철 목사님은 자신의 생활은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아름다운 헌신의 향기로 창조주께 영광을 마음껏 드리는 ‘들에 핀 한 송이’의 백합꽃이 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백합꽃’이신 예수님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유니온교회는 개척 이듬해에 <백합선교회>를 조직했습니다. 고통 당하는 이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기 위한 선교조직이었습니다. 월평균 헌금수입이 2,250달러여서 교회당 임대료 내기도 버거웠던 때였지만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살아보자는 믿음 하나 가지고 버티던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것처럼 온 성도들이 자주 금식을 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산(山)기도를 자주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고 미국 적십자사에 일 년에 한 번씩 단체헌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 절약한 음식 값을 모아서 ‘백합선교 헌금’을 했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마 6:28)고 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예수님 말씀을 지키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뜻밖에도 ‘기쁜 마음으로 내는 성도들’(출25:2)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크리스 선교기관들과 한국의 고아원들에 사랑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건설한 고아원 하나를 추천받았습니다. 인천에 있는 <향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를 도왔고 거기서 감사패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그 향진원 원장으로 고아들의 아버지 되신 분이 바로 김수철 목사님의 장인이셨었습니다.

김수철 목사님은 그 뒤에 유니온교회 부목사로, 찬양대 지휘자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창립 20주년 기념지교회 곧 <밸리유니온교회>를 담임 사역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이전하면서 <거리선교회>가 되었고 그것이 김수철 목사님의 로고처럼 쓰이는 <소중한 사람들> 선교회로 발전하여 미국, 한국, 그리고 아시아로 선교영토가 확장되는 열

동물과 다른점이 있기에 인간이다

사람은 본능을 따라 살지만 때로는 그것을 절제하며 탈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인데 그 중의 하나가 성문제다. 프로이드의 학설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발정기간이 따로 없고 시도 체면도 없이 생기는 성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이 좌우된다.



현순호 목사

일은 눈독을 들인 여자를 끌어오고는 그 남편에게 후대하면서 입을 봉했다. 그 두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있는 본성이지만 절제하는 것뿐이다. 더욱이 성욕에 다 호기심까지 겹치면 더 흥취한 짓을 하는데 짐승과 관계를 갖는 일이다.

그런 흥취한 일은 옛날에도 있었고(레20:15) 지금도 있다. 오늘날 무서운 에이즈는 아프리카의 원숭이에게 있는 독균이 사람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사람에게 옮겨져 세계로 번졌다는 것이 정설이다. 또 다른 성적 변태는 동성끼리 성 관계를 맺는 일이다.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라는 성에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롯이라는 사람이 하루는 여행 중에 있는 남자 행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 잘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했다. 그날 밤 그 동네의 남자들이 롯에게 물려와서 자고 있는 손님들과 성 관계를 하겠다고 요구하자 롯은 안된다고 하면서 시집가지 않은 자기의 두 딸을 내주었으나 폭도들은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더 좋다고 하면서 손님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중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 그 폭도들을 몽땅 쓸어버렸다는 것이다.

로마 전성시대에도 남자끼리 성교하는 악습이 만연했고 교회에까지 숨어들어왔다. 그 사실을 눈치챈 사도 바울은 무서운 책망을 교인들에게 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그런 악습을 행하고 심지어 그 나쁜 짓을 부추기기까지 하니 하늘의 벌이 무섭지 않느냐고 닦아 세웠다. (롬1:27 이하)

오늘날 이 사회가 부요해져서 지나치게 먹고 마시며 비정상적인 성 행위를 하는 경향은 분명히 종말을 자초하는 악행이다. 마치 헨센 솜뭉치 가능한 많은 암놈들을 거느린다든지, 애미와 애비의 구별도 없이 또는 같은 형제끼리도 서로 교미하며 번식하는 동물의 세계와는, 인간 세계는 달라야 한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어 한 가정을 이루어 건전한 성생활을 하는 것이 행복의 기초가 되고 그런 가정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다.

지난 6월말부터 환호와 분노를 분출하는 사건이 연이어 터졌다. 즉 미국의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주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결국 동성결혼을 합법화 시킨 일이다. 지지자들은 연일 축하 파티를 열고 대대적인 퍼레이드를 펼치고 동성애자들은 시정으로 몰려가 결혼을 하고 키스를 하는 장면이 연일TV에 비친다.

반면 반대자들은 실망의 한숨을 길게 내뿜는다. 미국이 어디로 가는 건가? 대통령까지 나서서 동성결혼을 부추기고 여론조사에서도 찬성율이 높다는 것은 이 사회가 확실히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고 주도권을 갖고 있는 요인은 기독교적인 도덕윤과 정의에 기초해서 나라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인데 그 기초가 흔들리면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은 따라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

얼마 전에는 학교에서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으로 주기도문이 없어지고 이번에는 동성결혼까지 합법화하는 풍토는 기독교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상식에도 못 미치는 악법이다. 옛 사람이나 현대인이나 돈뿐이나 있고 시간이 있으면 먼저 성적으로 타락하기가 쉽다. 묘한 것은 가능한 많은 성적 대상자를 가지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백제의 의자왕이나 유대의 솔로몬 왕은 전국의 미인들을 몇 천명씩 궁전에 끌어들여 놓고 성 중독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그 나라가 망하지 않았던가? 그런 사람들은 주위에 매력적인 사람이 나타나면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든다.

다윗 왕은 유부녀를 건드리고 그녀의 남편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였고 독재자 김정

남가주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마켓선교회

LA 지역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 11:00
어린이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토요일새벽 오전 6:20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2:45,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말-금) 오전 6:00(토), 유초등부 오후 12:30, 중고등부 오후 12:45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월-토), 저녁 오후 7:30(화,목,금)
978 S. Hoover St.#203 LA 90006

박현성 담임목사 여성열린문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1925 Wilshire Blvd, LA, T.(213) 383-2600

진유철 담임목사 여성순복음교회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EM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영아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김광삼 담임목사 여성제일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45
대학부 오후 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6:00(토)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오전 10:30(수)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2부 오전 6:30(말-금), 오전 6:30(토)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디머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0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서건오 담임목사 새로남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전 11:00, 주일 오전 1: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3407 W. 6th St 103 LA, CA 90020

김성광 담임목사 성재복음선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3313 W. Pico Blvd, 2F # A, LA, CA 90019

최운형 담임목사 세계선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EM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927 S Menlo Ave, LA, CA 90006

박승부 장로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17,27,37기 수료생배출, 현재4기 수료생 양성 중
-수기치료를포선교사 양성, -약품이나가수없이인산으로 각종질병치료하는 의술
LA 2836 w 8th st #106 LA, CA, 90005
OC 부활교회 (아리랑 마켓 뒤) T.(213) 381-7273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1부예배 오전 09: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말-금)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요한선교회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행 (정부 배넌전반),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 메디칼, 임신부 메디칼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김세환 담임목사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50, 3부예배 오후 12:00, 4부예배 오후 2:22
EM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말-금) 오전 5:25,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
17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회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말-금) 오전 7:30(토)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3부예배 오후 1:0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대표 김갑선 목사 지구촌농업선교회
부설 : Naturo pathy Clinic(말-금)
전문의 213) 505-7067
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블러시(Calling), 고지교(Healing), 기르메(Maturing), 왓슨(Monitor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1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전 5:30(말-토)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말-금) 오전 6:20(토)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 교회혁신교회

##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EM)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박해성** 담임목사

**남가주헬로십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성경공부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성일**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1:45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백성헌 목사, 백석영 목사  
세미나 및 수양관 사용  
여러문의 환영

**주의사랑 선교 수양관**  
아버지의 마음과 신부의 영성 교육센터  
11373 Oasis Rd. Pinon Hills, CA 92372  
T. (714) 932-8993, (760) 868-8583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창스년부 오전 11:00  
유년 유아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일예배 오후 8:00

**전길성** 담임목사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되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http://go2cross.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일예배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사우스 베이 지역

**윤선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u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EM)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홍장로교회**  
망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통)하고 인통(통)하며 물통(통)하여 만사형통합시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15(EM찬신)  
5부예배 오후 3:00(EM찬신)

장애유아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세교반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오전 7:00 (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pk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전 9:30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2:0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학생회예배 오후 12: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EM예배 오전 10:00  
스페인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 (월/우/삼/금)  
오전 12:00 (토/일)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수요일예배 오후 7:45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성현경**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나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 목회자 세미나 “제직을 목회자의 대리인으로 세우라”



양병희 목사와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 주강사로 나선 양병희 목사 제직훈련 관련 노하우 전해

2013 할렐루야 뉴욕대복음화성회 주강사 양병희 목사(서울영안장로교회)가 15일 오전 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뉴욕 일원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했다.

목회자 세미나는 할렐루야대회 강사가 매년 대회 폐회 이후 관례적으로 가져왔던 행사로 사실상 2013년 할렐루야 대회의 마지막 일정이다. 주강사로 나선 양병희 목사는 이날 자신의 제직목회에 대한 소명을 밝히고 철저한 제직의 체질화에 대해 강조했다.

제직의 철저한 체질화란 담임 목회자의 비전을 깊이 공유해 하나의 동일한 지향점을 갖고 목회를 적극 도울 수 있는 제직들을 기른다는 것이다. 즉 제직을 철저히 목회의 동역자로, 목회자의 대리인으로 세워 심방, 경조사 등의 업무를 분담한다는 것이다.

양 목사는 제직의 체질화와 관련, “성도들을 위해 꼴을 준비해야하는 목회자가 심방과 경조사 등을 다니다보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목회의 비전이 철저히 공유되는 제직들을 길러 목회자와 한 뜻, 한 몸이 되게 할 때 교회가 건강해 진다”고 강조했다.

김대원 기자

## ‘가슴 따뜻한 나눔’

### 방주교회, 독거노인에 케익 250개 선물·점심 대접



방주교회(담임 김영구 목사)는 지난 11일 LA한인타운에 위치한 필그림터교회에서 '사랑의 무료 급식행사'를 열고 한인 독거노인 250여명을 상대로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이날 행사 진행에 필요한 경비는 자바시장 인터넷 쇼핑몰 내에 위치한 '패션고'(대표 이호목)가 지원했다. 자원봉사자들이 노인들에게 전달할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 소노로스 20주년 정기연주회, “감동의 하모니”



남성 중창단 '소노로스 싱어스'가 창단 20주년을 맞아 정기연주회를 가졌다.

남성 중창단 '소노로스 싱어스'(Sonorous)가 13일 오후 7시 30분에 LA찬양교회에서 창단 20주년 정기 연주회를 열었다.

소노로스 이종현 음악감독은 “20년 전에 주님이 주신 꿈에 감사함으로 7명이 의기투합을 해 주님께서 20년 동안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셨다”라며 “오늘도 부족함을 갖고 여러분들 앞에 섰다. 오로지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되기를 원하고 이전보다 더 능력의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회장 조성환 교수는 “남가주에서 중요한 연주 때마다 귀한 역할을 담당해오 음악가들에게 본을 보이는 소노로스가 또 다른 20년을 꿈꾸며 달려 나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소노로스 싱어스는 '주의 말씀', '주

는 반석',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샘물과 같은 보혈은', '곧 그날이 오리' 등 총 15곡을 부르며 중창의 하모니를 드러냈다. 또한 피아노 독주로 홍영례, 소프라노 솔로로 여선주, 트럼펫 솔로로 김영민 씨가 참여해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했다.

소노로스는 1993년 7명의 단원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결성됐다. 단원들은 모두 성악을 전공하는 유학생으로, 각자 합창단원 혹은 오페라 단원으로 바쁘게 활동하던 차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을 갖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의기투합한 것이다. 현재 소노로스는 정기연주회와 초창연주회를 연 20여회 소화하는 연주단체로 성장했으며, 미주 대도시를 다니며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 영 동성결혼 합법화...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프랑스에 이어 영국도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 텔레그래프(The Telegraph)는 16일(현지시간)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지난 15일 상원을 통과한 동성결혼 허용 법안이 하원에서도 처리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동성커플이 합법적으로 인정받고 민간 혹은 종교기관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법안이 시행되는 2014년 여름부터 동성부부가 탄생할 전망이다.

그러나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성공회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금지되고,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허용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동성에 인권단체 스톤월(Stonewall)의 벤 서머스킬(Ben Summerskill)은 텔레그래프

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역사적인 발걸음이 수만 명의 동성커플들, 가족, 친구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 줄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법안의 통과, 동성애자들에 대한 강한 반대 세력이 있다 해도, 대다수의 상·하원 정치인들이 마침내 평등권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를 이해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동성커플에 '시민결합'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해 왔으며, 현재까지 사회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커플은 5만여 쌍이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5월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뤄졌고, 미국에서는 지난 6월, 대법원이 결혼을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으로 인정한 연방결혼보호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강혜진 기자

### >> 1면으로부터 기사 받음

그분노는 '나도 그 침묵자의 한 명으로서 그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내몬 것은 아닌지.. '회한과 아픔으로 바뀌기도 했다'고 말해 행사장을 숙연케 했다.

박 의원은 총부리에 정수리를 맞아 피고름을 짜내야 했던 이광혁, 공안에 맞아서 앞니 2개가 부러졌던 정광윤, 너무 차해 문철 형이 없었다면 굶어 죽었을 류광혁, 아빠와 함께 꽃제비 생활을 했던 류철영, 귀와 발가락에 동상이 걸렸던 백경완, 16살이 되기까지 글씨도 몰랐던 장국화 등 9명의 아이들 이름을 한병석 부르며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올해는 한미동맹 60주년이자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이 되는 해다. 하지만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북한 탄광지역에 적제는 350명에서 많게는 500명의 국군포로가 생존해 있기 때문"이라며, "이제 우리가 연합해 한 목소리를 내자. 그리고 기도한다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통일의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선택강의로는 "북한선교의 다윗 전법과 풍선사역의 실제"(이민복 선교사), "한국내 탈북민의 현실과 교회의 역할"(박선영 전 국회의원), "통일의 기초로서 북한인권정책의 중요성"(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등이 진행됐다.

### 北동족 해방과 탈북자 구출 위한 7단계 추진방향 선포

16일 저녁집회에서는 텔런트 정영숙 권사, 박선영 전 국회의원, 수잔 솔터, 텔런트 김시라 집사 등이 메시지를 전하고, 류응렬 목사, 최병호 목사, 김범수 목사(위싱턴교회 회장) 등이 통곡 기도회를 인도했다. 마지막으로 손인식 목사가 '북한 선교를 향한 7가지 비전'을 위싱턴선언문으로 낭독했으며, 이원상 목사의 축도로 저녁집회를 마쳤다.

수잔 솔터 여사는 시편 94편을 인용하며, "북한 내부가 변하고 있다. '장마당'을 통해 주민들이 시장경제의 원리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 힘은 계속 커져가고 있다. 또한, 갈수록 많은 이들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일어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잔 솔터 여사는 "지금처럼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 북한 정부는 또다시 교회나 NGO에 손을 내밀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제발 탈북자들과 그들을 돕는 단체, 자유북한방송 같은 곳에 도움을 줄 것"을 호소했다.

드라마 '장옥정'에서 장옥정의 어머니 윤씨로 출연했던 김시라 집사는 "노비라는 천한 신분때문에자식이 왕궁에 들어가자 죽을 수 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지고, 살기위

해 매일 도망쳐야 했다. 연기도 힘들었지만 이게 현실이라면 1초도 살지 못했을 것 같다"며, "탈북자들은 어땠을까? 서글픈게 된 지, 자유가 된 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느껴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배역을 주셨던 것 같다"며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다. 김 집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막한 땅을 평화의 나라로 바꿔주실 것을 믿는다"며, "매일매일 우리의 진심 어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손인식 목사는 북한 동족 해방과 탈북자 구출을 위한 7단계 추진방향으로 ▲북한의 문이 열리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서독 통일을 이룬 기도의 힘은 이제 한반도를 향해 타올라야 합니다! ▲동역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미국과 세계와 중국을 움직이면 북한은 무너집니다! ▲해외 디아스포라 교포들의 때가 왔습니다! ▲2세들을 깨워 여호수아가 되게 해야 합니다 ▲북한 기독교 재건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등을 선포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낭독했다.

### 로리 목사 "성경에 미국이 예언되지 않은 이유는..."



그렉 로리 목사

그렉 로리(Greg Laurie·하비스트 교회) 목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성경이 마지막 시대와 관련해 리비아·이란·이라크·에티오피아 심지어는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 대해 예언하고 있지만, 미국에 대한 예언이 없는 이유"에 대해 적어 놓았다.

로리 목사는 "마지막 날 시나리오에서 미국은 어디있는가? 우리가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묻은 뒤, "미국이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우선 핵 전쟁으로 폐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말 끔찍한 시나리오이고, 우리 중 누구도 이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소련의 해체 이후에도, 여전히 핵의 위험은 남아 있다. 이러한 사태를 원하지 않지만, 이는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두번째로 로리 목사는 잠언 14장 34절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말씀을 인용해 미국이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아닌, 내부의 문제로 붕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로리 목사는 "미국이 점점 세속화되면서, 우리의 교육 시스템, 법정, 예술 분야에서 하나님과 성경을 체계적으로 지워나가고 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안에서부터 부패할 것이

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 하면서 가정이 깨지고, 범죄가 잇따르고,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이미 일정 수준에서 이같은 일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학교·스포츠 행사·공공장소·일터 등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내쫓고 있다"면서 "종교의 자유'가 '종교로부터의 자유'가 됐다"고 지적했다.

로리 목사는 "미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절대적인 진리의 바탕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이 바탕을 잃었다면,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실제적인 혼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리 목사는 세번째로, 미국이 부흥을 목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흥을 통해 더욱 많은 희망을 발견한다. 이것을 생각해 보라. 모든 미국인들의 1/4이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는 7,800만명의 성도가 있다는 뜻이다. 이 수가 미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그는 물었다.

로리 목사는 마지막으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 미국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가 잠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스스로가 어떤 분인지 나타내주셨고,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게 하셨다"고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 O.C./얼바인 지역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9:45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30  
3부예배 오후 12: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20 금요찬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정애인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찬양부 오전 9:00/11:00  
한아대(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1부예배 오전 8:00 중교동부 오전 11:00 **민경엽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 대학부 오후 1:30  
유 초동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나침반교회**  
모이는교회 흠여지는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EL:562-691-0691. FAX:562-691-0698

**손병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4부(청년)예배 오후 1:0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박용덕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허귀암 담임목사**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기도 재래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금요공부 재래 8:00 분당

**남가주 잠실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el: 562-802-4959, Cell: 714-308-7038  
E-mail: usa8291@gmail.com

**김민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7:00  
EM/영아예배 오후 12:45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금요강제예배 오후 7:30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 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외 사무실)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손인식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후 12시 30분 성경공부 (화) 오후 8시 30분 **방익수 담임목사**  
중, 고등부 오후 3시 수요기도회 (토) 오전 10  
청년부 오후 3시 한국교회 (토) 오전 10

**사랑의방주교회**  
믿음을 믿고 믿음대로 살고 믿음으로 강복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교회  
13955 Yale Ave, Irvine, CA 92620  
T. (949) 654-0191

**신원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받은 우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살려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7:30(분당) EM예배 오후 12:15  
2부예배 오전 10:00(미리본센터) 수요일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11:55 (미리본센터)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6:00 (토)

**세리토스장로교회**  
미리본센터: 157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미리본 센터)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본당)  
T. 562-677-7777, F. 562-677-7778 / ilovepcp.org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한중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열린예배 (수) 오후 7:30  
4부예배 오후 1:30 성령강림회 (매월 둘째 금) 오후 7:30

**얼바인 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F. (949) 857-9242

**최상준 담임목사**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전 1:30

**얼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 769-9628

**김삼도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0:00

**얼바인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T. (949) 514-4346 / F. (949) 305-3951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화-금) **지 사론 담임목사**  
오후 7:30 오후 7:30  
(매일 S,D,F, Power minister)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성령강림으로 온전하게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살아있는 사랑의 강을 강요하는 주님의 부름을 듣고 인도하시는 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예배 오후 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우대현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30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엄영민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아대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월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신구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목회 담당 앤드류 김 목사**  
주일목상예배 오후 2:30 목요일 성경학교 오후 7:30  
월요일 선교학교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화요일 중보예배 오후 7:30 토요일 EM예배 오후 7:30

**작은자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결혼교실, 시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김철민 장로**  
www.GodFamily.com  
www.CMF.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강을 건너 세계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자 **박세록 대표**  
www.samcare.org

**SAM 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 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케미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31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 확장 이전 기념 세일!



확장기념으로 특별한 상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탈모닷컴(www.talmo.com)에서 베스트셀러인 최고급 제품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탈모 프리미엄 제품인데 한국에서 298,000원에 팔리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300불에 시판하고 있습니다. 탈모에 고심하거나 발모를 원하시는 분이나 번비가 심하시거나 다이어트를 하시기 원하시는 분, 특히 피부건강에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구연산이나 소금을 300불이치 구입하시는 분들께 300불짜리 한 박스(6개 작은박스들이)를 드립니다. 그리고 덤으로 16온스 소금(소비자가격 40불) 상당을 더 드리며, 200불 이상 구매 고객분들께는 산삼 한 뿌리도 증정합니다.

\$300불 HQ헬스 제품 구매시  
**\$300 탈환제품**  
(제품 품질때때까지)

**무료** 프리미엄TS탈환

\$100 구매시마다  
**미네랄 소금 1봉지**  
16온스(파운드)  
소비자가격 40불  
**무료**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 HQ 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p>프로모션 A</p> <p>알파2병 + 오리지널6병 = 8병 or 오리지널 8병</p> <p><del>\$280</del> <b>\$100</b> No Tax</p>	<p>프로모션 B</p> <p>알파3병 + 오리지널4병 = 7병</p> <p><del>\$270</del> <b>\$100</b> No Tax</p>	<p>프로모션 C</p> <p>알파5병 + 오리지널1병 = 6병</p> <p><del>\$280</del> <b>\$100</b> No Tax</p>
--	---	---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성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추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호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알칼리리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쓰시면 암, 차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벼워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다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잠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나옴.
-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를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가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올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무를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로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번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펴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 이부영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주던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망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야 하며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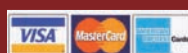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보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수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응연연구소 수료  
응연파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833 S. Western Ave. #1 Los Angeles, CA 90005



월-금: 10am-7pm, 토:10am-5pm

# Life

이스라엘 탐방

## 유대인의 정결 음식법 코셔르(Kosher)



'코셔르'라 적힌 코카콜라 병 뚜껑

나는 친유대주의자도, 반유대주의자도 아니다. 나는 다만 그리스도인일 뿐이다. 바울의 교훈처럼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든 아니든, 태생이 아프리카 원주민이든 백인이든,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롬 3:22).

바울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유대인의 나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을 첫째로 꼽았다. 그러나 현재 유대인들의 생활을 보면 대부분은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성경의 잘못된 해석에 기초한 전통에 근거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 실상을 알고 있는 나는 기회가 되면 유대인들의 허상을 지적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에 이른 그리스도인들이 당

연히 유대인들에 비하여 더욱 경건에 이르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래서 나는 이런 잘못된 질문을 하고 내가 대답한다. 전통이 복음보다 앞서는가? 아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은가? 역시 아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소중하게 지키는 것만큼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단순한 ‘날’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다. 안식일은 유대인의 정신이고, 유대 민족의 주체이며 유대 민족을 역사에서 구원해낸 원동력이기도 하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주일을 구원의 개념에서 지켰던 적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바로 그때에는 개인마다 경건함에 이르렀고, 가정이 회복되었고, 사회가 부패로부터 정화되었으며, 국가를 향하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배푸심이 충만하였던 때였을 것이다.

유대인의 정결 음식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잊혀져 가는 기독교의 문화가 아쉬워, 기독교 문화가 교회마다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서론에서 몇 자를 적은 것이다.

것이다.

이스라엘을 여행하거나 미국 크로거(Kroger)와 같은 슈퍼마켓에 가면, 유대인 음식 코너에서 식품 포장지에 히브리어로 코셔르(Kosher)라고 쓰여 있는 작은 글씨를 볼 수 있다. 이것은 레위기와 신명기의 음식 규례를 따라 만든 식품임을 알리는 것이다. 정결 음식법은 히브리어로 크셰롯(Ksherot)이라 하고, 그 규정에 맞게(fit) 만들어진 정결한 음식을 코셔르(Kosher)라 한다. ‘코셔르’의 뜻은 적합한, 적당한, 일치된 등이다. 정결 음식의 성경적 근거는 신명기 14장과 레위기 22장이다. 정결한 음식은 들 짐승의 경우 굶어 갈라지고 되새김하는 것, 물고기의 경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생선, 날짐승의 경우 먹지 못하는 새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날기도 하고 기어 다니는 것은 먹을 수 없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엄격하게 금지한다. 유대인들은 돼지(히브리어로 ‘헤지르’)라는 단어를 발음조차 꺼려, ‘흰고기’라고 완곡하게 말하기도 한다. 코셔르의 특징은 고기와 유제품을 함께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기를 먹은 후 최소한 6시간 이상 지나야 유제품을 먹을 수 있다. 신명기

14장 21절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는 말씀에 근거한다. 비슷한 말씀이 레위기 22장 28절에 기록되었는데, “암소나 양은 물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잡지 말지니라”는 것이다.

비록 짐승일지라도 같은 날에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죽이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신명기의 말씀을 확대 해석하여 염소 새끼를 고기류 전체, 어미 젖은 유제품 전체, 삶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말라는 것으로 그들의 실생활에 적용한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아침 식사는 우유가 들어간 유제품 위주의 음식이 되 고기 종류는 없다. 반면 저녁 식사는 오레 전부터 고기 위주의 메뉴로 정해졌으며, 유제품은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유대인 식당에서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커피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커피와 함께 제공되는 우유, 크림과 식사 때에 제공된 고기류가 코셔르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혹시 유대인 가정에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거나 코셔르 음식점에 들렀을 경우 주의 깊게 살펴보자. 그러면, 닭고기와 계란, 또는 소고기와 유제품이 함께 메뉴로 제공되는 일은 절

코 없다. 이스라엘에서는 소고기, 햄, 닭고기를 피자 치즈 위에 얹어 제공되는 것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다. 전통에 열심인 유대인들의 경우 식사 내용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그릇도 달라진다. 심지어 엄격한 유대 종교인들은 세면대, 찬장, 행주까지도 구별하여 사용한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 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닢그릇을 씻음이라라”(막 7:3-4)

**이주섭 목사**

현)두루Tentmaker(www.eduru.co.kr/두루투어/두루예수/두루문화원) 고문

현)조지아 크리스찬 대학교 역사 지리학과 교수

현)성서지리연구원 원장

전)예루살렘 대학 역사학과에서 고대 성읍, 히브리 대학 고고학과에서 고대 도로를 수학



강선영 칼럼

## 파도를 직면할 것!

저는 바다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에메랄드빛 바다. 잔잔히 펼쳐져 있는 바다를. 그래서 휴가를 떠날 때면 언제나 바다를 보려는 곳으로 가곤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가졌던 휴가 기간 동안 2시간 정도 배를 탈 일이 있었습니다. 갈 때는 잠잠하던 배가 돌아올 때는 몹시 사나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영도 못 하는 저는 파도가 높이 오를 때마다 치솟았다가 다시 폭 가라앉는 배 안에서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배 안에는 삼백 명 정도의 승객이 있었고, 그 중에 몇몇은 저처럼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오악, 난 이런 바다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울 듯한 표정으로 소리 지르자 옆에서 딸아이가 재미있다는 듯이 웃으며 떨고 있는 제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아, 저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한동안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직 남은 시간은 1시간 55분... 그

시간 동안 공포에 시달릴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구도하는 소리가 들렸으나, 주위를 둘러보니 태반의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잠든 그들 때문에 오히려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허리를 곧추세우고 뱃전에 부딪치는 파도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바람에 숨을 몰아쉬는 바다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며 심호흡을 하자, 불안과 두려움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아, 놀라웠습니다. 1미터, 2미터까지 치솟는 파도를 눈을 부릅뜨고 직면하자, 배의 오르내림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파도에 몸을 싣고 출렁이며 앞으로 전진하는 이 배가, 결코 부서지거나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평안해졌고 놀랄게도 재미있기까지 했습니다.

파도를 직면하니 침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 그것은 오래 전 깨달음을 재확인하게 했습니다. 수많은 파도를 넘어왔던 나, 그리고 당신은 알 것입니다. 우리는 무서운 파도를 보면 본능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회피하고 웅크리게 됩니다. 제가 앞좌석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질끈 감고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았지만 명료한 눈빛으로 파도를 직면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진 것처럼, 생의 파도를 회피하며 두려움에 떨고만 있지 말고, 그 파도를 직면하며 두려움을 넘어설 때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긴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고, 고난을 받고, 시련에 부딪히고, 배신 당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마다, 파도는 숨넘어갈 정도의 공포를 싣고 우

리 자신을 침몰시키려고 합니다. 피하면 평생 피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넘어서지 않으면 평생 두려움에 시달려야 합니다. 두려움을 넘어서야 치유되고 용서도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파도를 만날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파도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파도를 직면할 용기가 있는 한 우리는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눈을 들어 파도를 보기만 해도 빠져나올 방법이 점점 보일 것입니다. 파도를 직면할 힘조차 없더라도, 그 눈꺼풀만 들어 바라보기. 조금 더 눈에 힘을 주어 직면할 것! 내가 직면하는 동안 파도는 더 이상 파도가 아니고, 내가 탄 배는 안전하며 그 출렁거림을 놀이기구를 타듯이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탄 인생의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로 견고

하게 만들어져 있으므로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생기기만 하면 파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운 놀이기구가 될 것입니다.

파도를 지나오면서 죽음 같은 공포의 시간을 넘어서니 영혼의 평강과 행복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 떨쳐낼 수 없는 기쁨을 가지게 되었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는 행복과 자유를 이루어냈습니다. 때때로 외로움을 느끼지만 지난날의 병적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실존적인 건강한 외로움이며 누군가와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면 금방 사라지는 그런 외로움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파도를 직면하고 회피하지 마세요. 파도가 더 이상 당신의 삶을 파괴하지 못 하도록 두 눈 맑게 뜨고 바라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강선영 소장



### 장재효목사의 반세기목회와 선교확장 보고서

“우리가 살기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롬 14:8)

#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에게 쓰임받자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에게 쓰임받은 진실되고 충성스런 종의 고백은, 언제나 내가 한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주님께 쓰임받은 결과, 성령께서 역사하신 성과뿐이더라!”

장재효 지음

진실로 바른 목회를 열망하며 책임목회의 사명의자로 더 많은 구령성과를 위해 받은 바 주님의 은혜보답과 맡기신 사역의 영적성과를 위해 진총간력하시는 목회자라면 이 책을 탐독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시대에 요긴하고 더욱 힘있게 쓰임받을 유능한 사역자가 되게 하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이 책을 구입 탐독하실 때 영적신앙과 사역에 성령님께서 인도 역사하심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 책값으로 지불하신 10불은 한,미간 탁송운임과 구독자에게 배송 우편비로 사용될 뿐, 책값은 무료로 국제성은복음선교회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구입문의 : 213.739.0403

# 그래도 하나님은 미국의 주인이시다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마침내 우려하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다. 6월 26일 미 연방대법원에서 전통결혼보호법(DOMA)을 위헌으로 결정했고, 동성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CA)주 법조항 PROP.8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제9연방 항소법원 판결을 다시 심의해 달라는 항소를 기각했다. 따라서 사실상 캘리포니아에 동성결혼 반대법인 PROP.8은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

대통령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취임사를 하는 나라, 달러 안에 "In God We Trust"라는 문구를 새겨 넣으며 최고도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온 미국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가 됐다. 2013년 6월 26일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참으로 부끄러운 날이 됐다. 이 땅에 그토록 많은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있건만 파수꾼

의 사명, 진리 등대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치 못했다. 이 같은 결과가 주어졌다는 사실 앞에 참회의 눈물이 앞을 가린다. 세계선교 1위국인 미국이 동성결혼 지지국으로 변하면서 성경적결혼관이 무너지고 범죄가 만연하며, 미국교회의 영성도 죽고 교인도 줄어 결국은 세계로 나간 선교사들을 철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제는 근친상간과 일부다처주의, 소아성애자들까지도 인권과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외치며 나오는 불법과 도덕불감증이 만연한 시대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지도 모르겠다.

그동안 남가주교협과 OC교협, 성서화운동, JAMA운동의 지도자들이 모여 전통결혼보호법(DOMA)과 CA PROP.8을 지키기 위해 한끼 금식기도운동을 전개했고 (필자가 사무하는) 주님세운교회는 이를 위해 특별 금식 작정새벽기도회를 펼쳐나갔다.

비록 결과가 우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미국을 통치해 나가고 계신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 하지말찌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6:9)"하신 말씀대로 우리 기도의 응답은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낙심하

지 말고 일어나 다음 전투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시급한 일은 첫째로, 차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이다. 우리의 자녀들을 요셉과 에스더, 다니엘처럼 미주류사회에 올라가 정치계를 비롯한 경제계, 법조계, 교육계 등에서 영향력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인재로 키워나가는 일이다. 청교도신앙을 회복시켜 나갈 정치인과 기업가, 판?검사들과 교사들을 양성하는 일이다. JAMA에서 차세대 지도자교육을 위한 4주 과정인 'GLDI(Global Leadership Development Institute)' 같은 훈련이나 미주성서화운동본부에서 매년 펼치는 '하이어콜링(Higher Calling) 미주청년 학생 대회' 같은 훈련을 통해 수많은 크리스천 차세대 지도자들이 배출되도록 모든 교회가 협력하고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교회 안에 1.5세, 2세 영어권 지도자들에게 동성애가 인권과 성향이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제프리 새티노버(Jeffrey Satinover) 박사가 쓴 금세기 동성애에 관한 최고의 저서 <Homosexuality and the Politics of Truth>라는 책에는 동성애는 결코 선천적인 것이 아니며 성향도 아니고 오직 후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동성애자들이 치료를 받고 회복된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다. 한인 중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동성애를 인권과 성향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 판단하고 성경 레위기18장과 열왕기상 14장, 로마서1장에서 확실히 금하고 있는 동성애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동정하고 지지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전도대상이요, 치료대상이며 금술사역의 대상으로 알고 기도해야 한다.

둘째로, 한인교회가 앞장서서 교회 내에 기독교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홈스쿨링(Home Schooling) 제도를 도입하는 일이다. 자체교회(건물)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2-300명 성도가 모이는 교회이면 프리스쿨이나 초등학교를 세울 수 있고, 500명이면 중?고등학교를 세울 수 있고 1000명이면 대학교를 세울 수 있다. 또 홈스쿨링 제도를 통해 자녀들을 인터넷으로 부모들이 양육하고, 기독교 신앙으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이 시대의 요셉과 에스더로 키워낼 수 있다.

셋째로, 공립학교 내에 성경공부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교회가 지원해야 한다. 특히 점심시간을 이용해 공립학교 인근에 있는 교회를 개방하고 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며 성경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사

들이 되어 공립학교 내에 기독교사들을 통한 성경공부운동, 기독교생운동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

넷째로, 어머니 기도운동(Mom's in Touch)을 적극 지원하고 한인 어머니들이 동참하는 일이다. 자녀들을 학교에 등교 시킨 후 어머니들이 인근 집이나 교회에서 모여 학생들과 교사들, 학교를 위한 기도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Mom's in Touch' 같은 건강한 기도운동이 요원의 불길같이 미 전역에 확산되는 일에 한인 어머니들이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경건한 기독교인을 정치인으로 세우는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육법안을 제정하거나 지지하는 정치인을 퇴진시키고, 최고도 신앙으로 미국을 회복시키려는 경건한 정치인을 후원, 양성하며 각 정치계에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 기독교 시민권자들이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 시대의 교회는 크루즈가 아닌 항공모함이다.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은 주님의 교회를 3000명이 타도 300명만 일하고 나머지는 여행을 즐기는, 일명 '크루즈교회'로 만들지 말고, 3000명 모두가 전신무장하여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 각자 맡은 사명에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항공모함교회'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IT 칼럼

### 카카오톡 PC버전의 등장

며칠 전 일터에 도착한 후에야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왔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여러 일정이 잡혀 있던 터라 당장에 집에 가서 가져올 수도 없고, 전화기 없이 어떻게 하루를 지내나 하는 난감한 고민을 하던 순간, 머리를 스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건 바로, 최근 설치해 둔 카카오톡 PC버전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카카오톡에 로그인하자 다행스럽게도 사용 가능하도록 된 것입니다. 일의 특성상 전화도 많이 오지만 그만큼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하기에 오늘 연락해야 할 사람들에게 전화기를 가져오지 않았음을 문자 메시지로 알리고 연락사항을 카카오톡으로 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전화기가 없는데 어떻게 사용하냐는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날 별 불편없이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중소기업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겨뤄 당당히 맞서고 있는, 아니 그들을 이기고 있는 작지만 강한 앱(App)이 바로 카카오톡입니다.

해외동포를 포함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사용하고 있다는 이 앱은 문자 또는 음성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순간적으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료이니 고마운 앱임에 틀림없습니다.

라인, 구글톡 등 비슷한 종류의 앱은 여럿 있지만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단연 카카오톡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카카오톡의 PC버전이 최근 등장한 것입니다. 이 앱은 앞서 필자가 실제 경험한 사례뿐 아니라 여러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한 번에 많은 사람에게 긴 글을 보내야 하거나 여러 장의 사진을

보내야 하는 교회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편리한 방법으로 사용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컴퓨터에 보관된 각종 문서들을 손쉽게 복사해서 보낼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 작은 자판을 손가락으로 눌러 글을 만들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컴퓨터의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해 쉽게 글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문자를 보내거나 받을 때 스마트폰에도 동시에 같은 내용이 표시됩니다. 처음 PC에 로그인할 때 스마트폰에 "PC에 접속됐다"는 메시지가 나오므로 인해 내 계정이 누군가에 의해 도용되고 있음을 알 수도 있어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충분히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도 매우 간단합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URL(<http://www.kakao.com/talk/ko>)를 입력하고 들어가서 PC버

전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고 다운받은 다음, 지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물론 이 기능은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에게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을 사용하시던 분들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PC버전을 사용하다가 스마트폰으로만 사용할길 원하시면 PC버전에서 로그아웃만 하면 됩니다.

어릴 적 깊은 감명을 주었던 생텍쥐베리의 <어린왕자>에는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을 비웃으며 "우물에 천천히 걸어가 물을 마시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은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수도가 없어 우물까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수도가 있음에도 가뭄이 아닌 매일, 우물까지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반드시 옳다고는 얘기할 수 없

습니다.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은데 수도가 바로 곁에 있음에도 이를 사용할 줄 몰라 우물까지 걸어간다면 이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갈수록 어두워져 가는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이들이 세상을 인도하는 세상이 돼야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땅에 두시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크리스천들의 삶에 필요한 어플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수십만개의 어플 중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아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매우 중요한 사역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격려를 바랍니다.

글=남가주웨슬리교회  
윤승준 안수집사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맥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 팩스 : (213) 402-5136  
 E-mail : [chdailya@gmail.com](mailto:chdailya@gmail.com) /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농협 **홍삼**은 100% 대한민국 민족기업

**한삼인은 정직합니다**

www.korginseng.com 323.737.8888

**척추 전문 한방병원 장수 한방병원**

비수술 척추 디스크치료 척추 한방 병원

상경추 교정, 경추 교정, 척추 교정, 체형 교정, 관절염, 자세 교정, 허리 디스크 교정, 골반 교정

디스크 치료 후에도 계속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팔이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거나 감각이 없으신 분  
 목을 돌리기 힘들고 통증이 있으며 손가락에 감각이 없으신 분  
 어깨 통증으로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든 분  
 잠을 자고 난 후 갑자기 목을 움직이지 못하며 통증이 심하신 분  
 갑자기 허리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 분  
 지긋지긋한 허리통증과 만성 디스크로 뼈뺀 척추  
 엉치 및 다리가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으신 분  
 물건을 들다가 빠듯하여 허리가 아픈 분  
 그 외 척추로 인한 모든 질병 걱정 뚫!

비수술 척추 **추나 치료**  
 척추 교정으로 **척추질환**과 **척추 통증 치료** 예방이 가능합니다.

생활속에서 **바른 자세**와 **올바른 생활 습관**만 지켜주시면 척추교정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앉아 있을 때** 자연스럽게 못하거나 **수면을 취할 때** 잘못된 자세 또한 **윤전중** 잘못된 습관 등으로 척추에 변형 때문에 척추 디스크가 발생하며 심한 통증을 유발하거나 저리며 뻣기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자세교정**과 **척추 교정** 및 **맞춤운동**으로 척추 디스크에서 해방되십시오. 척추는 우리 몸의 대들보입니다.

장수한의원에서는 **20주년 특별 할인 행사**로 저렴하게 척추 통증 치료 및 예방이 가능합니다.

T. 213-219-2739 713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이상명 목사의 성서로 문화 읽기



이상명 목사  
미주장신대 총장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가 여러 개 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그중에 하나다. 인류는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 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그리 행복하 지 않다는 주장이 가끔 마스크를 장식 한다. 독일계 스위스 시인이자 소설 가였던 헤르만 헤세(Herman Hesse) 는 <행복해 진다는 것>이라는 시에서 인생의 의무가 행복임을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인생에 주어진 의무는 / 다른 아무 것도 없네 / 그저 행복하라는 한 가 지 의무뿐 /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세 상에 왔지(이하 생략)

행복을 수치(數値)로 매길 수 있다?

이 땅에 태어나 행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헤르만 헤세가 읊은 것처럼 인생의 의무는 행복 추구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 처럼 인간 존재의 목적은 행복이다.

사람이면 누구나 행복을 최대의 목 표로 생각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 갈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 영국 런던 대학교 퀸즈메리칼리지 소속으로 문 화사 교수인 리처드 스킨(Richard Schoch)은 자신의 책 《행복은 어디 에 있는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 다. "행복은 유망 성장산업 중 하나가 되었다. 자기계발서의 1년 매출액은 10억 달러며, 지구촌 항우울제 시장 은 놀랍게도 170억 달러에 육박한다." 매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 가별로 생활의 만족도와 풍요로움 을 지표화한 행복지수를 발표하고 있 다. 이 행복지수는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삶의 만족 도, 미래에 대한 기대, 실업률, 자부심, 희망, 사랑 등 인간의 행복과 삶의 질 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산출된 지표이 다. 2012년 기준의 행복지수에 따르 면 OECD 36개 회원 국가 가운데 미 국은 3위, 한국은 24위를 했다.

이러한 통계가 말해주듯 현대인들 은 행복을 수치로 매길 수 있고, 마치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듯이 행복을 구 입할 수 있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인들도 국민 행복 시대를 외치며, 관련 공약들을 쏟아낸다. 누 구나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렇다고 행 복은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아 니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행복의 유형 도 다르고, 행복을 느끼는 정도도 다 르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 은 추상적 가치여서 그 정체가 늘 모 호하다. 누구나 행복을 말하지만 그것 을 제대로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

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행복'이라는 단어의 이력서

'행복'을 뜻하는 영어 단어 '해피니 스(happiness)'는 그 어원이 '일어나 다(happen)'에서 파생되었다. 이것을 보면 행복이란 원래 인간 스스로 통 제하거나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 상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기회와 행운을 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영웅들조차도 행복 을 자신들 마음대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운명의 여신인 포르투나 (Fortuna)의 손 안에 놓여 있는 천상 의 것으로 여겼다. 이러한 행복의 이 해는 고대 사회에서 현대 사회로 내 려 오면서 천상의 것에서 지상의 것 으로 그 행복의 의미가 서서히 바뀌 었다.

지상의 것으로서 누구나 노력 여하 에 따라 성취할 수 있는 행복이라는 개념은 그 역사가 의외로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18 세기 말 영국의 법학자이자 공리주 의 철학자였던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의 유명한 명제, "최대 다수 의 최대 행복"에서 기원되었다. '최대 행복'이라는 표현에서 벤담은 '행복' 을 '쾌락'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 다. 고대적 의미의 행운 대신, 쾌락을 행복으로 이해한 벤담의 의미 전환은 당시로서는 낯선 것이었다. 따라서 벤 담에 따르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최 대 다수의 최대 행복 추구에 있었다. 벤담이 남긴 영향은 우선 행복을 계

산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행복의 양화(量化)였다. 그러나 행복의 기준 이 사람마다 집단마다 다른데, 길이와 무게를 한가지 단위로 통일해 계산할 수 없듯이, 모든 행복을 수치로 계산 해 낼 수는 없는 법이다. 주택 평수와 통장 잔고와 은퇴 연금의 액수로 과 연 행복을 잴 수 있는가? 돼지처럼 진 창에 뒹굴어도 그 나름 행복할 수 있 지 않은가?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최 대 다수만 기준으로 삼는다면 소수의 행복이 설 자리는 잃게 된다. 다수의 횡포로 인해 정의의 문제가 자연스레 발생한다.

크리스천·크리스천 공동체의 행 복 기준

우리 크리스천이나 크리스천 공동 체가 누리는 행복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가? 개인의 이익과 쾌락 추구 위에 행복의 토대를 쌓는 것은 분명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멀다. "최 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매력적인 명 제이기는 하지만, 아흔아홉 마리의 양 을 들에 두고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비유와는 공명되지 않는다.

크리스천의 행복은 우선은 '엔 크 리스토', 즉 '그리스도 안에' 놓여 있 다. 행복의 원천은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전 8:9). 참된 씬(마 11:28)도 평안(요 14:27)도 그 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이다. '그리 스토 안'이라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

적 영성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이룸 이다. 두 번째는 자족(自足)의 원리 다(골 4:11). 하버드대학교의 저명 한 심리학자인 대니얼 길버트(Daniel Gilbert) 교수는 우리가 행복을 지상 최대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얻기 위 해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더 행복으 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 했다. 이것이 현대인들이 물질적 풍 요 속에서도 행복에서 점점 멀어지 는 이유이다. 욕심을 욕심으로 채우 려는 한 행복 지수가 아닌 불행 지수 만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과 관 련하여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나 부 모로 하여금 망연자실케 했던 닉 부 이치치(Nick Vujicic)가 행복 전도사 로 살아가는 이야기는 가장 좋은 예 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 대한 소중함 을 인식하고 그들을 섬기는 태도에서 행복은 싹튼다. 행복이란 개인적 차 원도 있지만 사회적 차원도 있다. 축 적된 자본이 사회적으로 적절히 배분 되어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도 행복 을 누릴 때, 행복한 공동체가 조성된 다.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 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 을 씻겨 주신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 속에서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사이에서 자라는 진정한 행복을 본다. 탐욕 의 문화에 찌든 현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의 원리로서 섬김 과 나눔을 실천하는 태도로 살아가 는 것이 세속적 행복으로부터 크리스천 의 행복을 가름하는 기준이면서 크리 스펬 됨의 정체성이다.

성경통독과 이해를 위한 스무 번째 지팡이



이학진 장로  
성경통독과 이해를 위한  
씩난 지팡이 저자

순교하기 전에 디모데후서를 썼다고 추정합니다.

디모데전서

AD 63년경에 사도 바울이 젊은 목 회자인 디모데에게(1:1-2), 바울은 당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던 디모데를 격려하며 교회내의 문제들 을 해결할 수 있는 교리적 교훈을 주 기 위하여 이 서신을 쓰게 되는데, 그 내용은 먼저, 바울은 사역자의 자세에 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복음과 교회의 일꾼으로 거짓 교훈을 경계하고(1:3-11), 선한 교훈으로 양 육받고 하나님께 받은 복음의 진리와 교리를 잘 지켜서 성도를 가르치고 경건을 연습하라고 충고합니다(4:6-16). 다른 하나는 교회의 정의를 통하 여 그리스도인의 몸이 교회(엡 2:19-22)이며, 직제로서의 교회, 즉 장로나 집사를 세우는 일(딤후전 3:1-16)에 대 하여 말합니다(3:1-16).

그리고 거짓 교사와 영지주의에 대

해 경계하고 있으며(1:3-7, 4:1-5, 6:3-10, 20, 21) 또한 목회의 실제적 인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교훈하는데 거짓선생을 잘 구분하는 일, 나이 많 은 성도들, 과부들, 장로들을 대하는 법 등을 소상히 알려주고(6장) 자족 과 경건의 생활을 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독려합니다(6장).

디도서

AD 65년경에 사도 바울이 그레데 의 목회자인 디도에게, 바울은 당시 거짓 교사들에게 도전을 받고 있던 희망의 상속자, 디도를 격려하며, 말 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 기 위하여 본서를 썼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목회 서신으로 이 단에 대한 경고(1:10-16), 거짓 교사 들에 대한 처리(3:9-11)와 함께, 교회 의 조직, 장로의 자격과 감독의 직무 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1:5-9, 2:1-10). 둘째, 기독교 신앙의 중요 한 교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

다. 그 교리는 선택(1:1), 영생(1:2, 3:7), 그리스도의 신성(1:3-4, 2:13), 영감(2:5), 은혜(2:11), 구원의 보편성 (2:11), 재림(2:13), 대속(2:14), 전적 부패(3:3), 중생(3:5), 칭의(3:7) 등입 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그 리스도인의 경건한 삶과 선행에 대하 여 교훈하고 있으므로(1:16, 2:7, 14, 3:1, 8, 14) 본서는 믿음과 행함 즉 하 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선행을 아울 러 강조합니다.

디모데후서

AD 67년경 혹은 68년 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어 서 쓴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네 로 황제(AD 37-68년)가 기독교를 희 생양으로 삼아 정치적 실정을 만회하 고자 로마당국으로부터 모든 죄수를 수감하라는 명(65년)에 의하여 재수 감된 바울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 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유인 에 가까운 편지를 씁니다. 이 유언은

한마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 라'입니다. 고난이 싫다고 해서 복음 을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인 의 아름다운 일로서 고난과 함께 복 음을 받고,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합 니다(4: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 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 내용은 바울은 당시 거짓 교사 들에게 도전을 받고 있던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하 나님께로 받은 우리의 믿음 생활(바 른 생활)을 잘 지키라(2:1-3:17) 또 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 고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성령으로 말 미암아 그 말은 바 선한 것을 지키라 (1:7-14) 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사 사로운 부탁으로 충실한 동역자인 디 모데와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고, 드로 이에 남겨 두었던 겔롯과 책과 종이 에 쓴 것을 가져다 달라고 말합니다 (4:9, 13).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00%**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 복사기 무료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 복새통

##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 REVIEW

## 왜 '육신의 고통' 과 '영혼의 어두운 밤' 을 주시는가

지난 주말,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나라 국적기의 사고로 2명의 꽃다운 중국인 여고생이 목숨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는 고통을 겪었다.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주기 위해, '육신의 고통'과 '영혼의 어두운 밤'에 대해 이야기한 두 권의 책을 함께 소개한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댄 G. 매카트니 | 서울일역 | P&R | 167쪽

### '두려움과 절망과 외로움' 이기는 것은 '믿음·소망·사랑'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인에게) 고통을 허용하시는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는 모든 시대의 문제이자, 모든 사람이 묻는 이 질문에 답하려는 책이다. <성경해석학(IVP)>을 쓴 저자인 댄 G. 매카트니(Dan G. McCartney)는 먼저 이 질문의 '당위성'에 대해 증명을 시도한다. 책의 첫 문장은 이것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부르짖으셨다는 뜻. 저자는 "이런 질문은 자연스럽고, 사실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자

연스럽지 않은 일"이라며 "신자와 불신자 모두가 이런 고통에 직면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시며 전능하신 마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특별하고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서두에서 밝히고 있다. '고통의 의미'가 세상 앞에서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신에게조차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고, 고통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심리적으로도 회피할 수 없다는 것. 저자는 성경이 고통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해 항상 명확한 해답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성경은 매우 빈번하게 고통에 대한 답을 주고, 고통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 주며, 하나님이 고통을 특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심을 말한다. 성경은 '고통에 대한 책'이며, 고통에 대한 성경의 대답들은 절대 간단하지 않지만 그 대답들은 우리가 자신의 고통에 대해 관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다고 전한다. 책은 창세기 3장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살피고, 욥기를 통해서는 '불의한 고통'에 대해, 베드로전서를 중심으로는 '왜 그리스도인에게 고통이 있는가'를 각각 알아보고 있다. 이후 저자는 "그리스도인은 고통을 당하도록 부름받았다"며 고통을 하나의 '소명'이라 말하고,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어두워지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기쁨으로 고통 속에서도 그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해 시편을 제시하며 실제적

인 도움을 주고 있다. 두려움과 절망과 외로움을 이기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고전 13장)이다. 믿음이 두려움을 정복하고(시 13:27편), 소망이 절망을 사라지게 하며(시 22:42편), 사랑으로 외로움을 극복할(시 73:131) 수 있다. "고통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고통에 대한 대답은 종종 우리가 당장 그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역사하고 있다는 약속(롬 8:28)을 붙들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는 항상 받아들이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 하나님이 고통을 보내실 때,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고, 학대한다고 느끼며, 고통은 말 그대로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조명 아래서만 당신은 모든 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영적 성장의 신호, '영적 단맛 중독증' 벗어나야 <할렐루야 변호사(두란노)>의 저자 주명수 목사는 16세기 스페인 수도사·신학자인 십자가의 요한을 통해 보는 '영혼의 어두운 밤'에 대해 탐구했다. '하나님 부재체험'과 비슷한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 테레사 수녀의 '신(神)의 부재' 고백으로 잘 알려졌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현대 개혁주의 교회가 '감각의 메마름'을 퇴보로 비난하고 있지만, 대다수 그리스도인

들이 그 영적 여정에서 경험하는 감각적 메마름은 오히려 영적 성장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현대 개혁주의 교회가 '영적 단맛 중독증-하나님께서 영혼에게 단맛만을 주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한다. '감각적(sensory) 메마름'과 '정신적(spiritual) 비참함'을 분별할 수 있다면, 감각적 메마름과 정신적 비참함 속에서 영적인 어두운 밤을 걸어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성장을 기대하면서 그 밤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영혼의 감각적 국면은 오감과 육체와 감각적 욕구들을, 정신적 국면은 지성, 기억, 그리고 의지를 각각 포괄한다. 이 두 국면은 모두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데, 감각과 정신이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것이 십자가의 요한이 이야기하려는 바이다. 하지만 그가 이원론자는 아니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 감각적 메마름과 정신적 비참함을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야 한다는 것. 저자는 이를 바탕으로 "감각적 메마름과 정신적 비참함을 신앙생활을 잘못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것이 아니다"며 "이러한 영적 성장을 위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경험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이제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를 적용시킨다.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파산하거나 갑작스럽게 말기암 선고고를 받고, 사랑의 위기를 맞



영혼의 어두운 밤  
주명수 | CLC | 368쪽

아이혼의 아픔을 겪는 등 '어두운 밤'은 일상생활 속에 가까이 있고 일터에서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양한 형태의 어두운 밤의 공통적 특징은 바로 '고통'이다. 고통을 통해 영혼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식한다. 이때 영혼에게는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이같은 '영혼의 어두운 밤'에 하나의 '영성 전통'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영적 성장을 위해 주신 축복의 기회로 삼아주어 제안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머물게 하지 말고 삶의 현장, 현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훈련시키며, 균형 잡힌 영성지도자를 양성하고, 교회 공동체 외의 '조직체'에 오는 어두운 밤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 세종 뇌보감 골드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추억도 기억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종바이오테크 SEJONGBIOTECH, INC.

#### 세종 송보감

“충추는 당노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 세종 요로청보감

“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

#### 진짜 발효삼? 고려 발효삼

“면역력 증진, 기력향상” “겉술로 만든 발효홍삼”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www.sejongbiotech.us](http://www.sejongbiotech.us)

목회자분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213-383-8899**

621 S. Virgil Ave #430 LA CA 90005(미주북음방송국4층)

## 세리토스현대 CERRITOS HYUNDAI

EQUUS SIGNATURE 2013	SONATA GLS 2013	ELANTRA GLS 2013	ACCENT GLS M/T 2013
<p>5 @ THIS PRICE</p> <p>Cash Out of Pocket...\$4,9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1,000 Lease Cash...\$1,500 Total Drive off...\$8,399 Term...36 Miles per Year...12,000</p> <p><b>\$499 Lease</b> per month plus tax</p>	<p>5 @ THIS PRICE</p> <p>Cash Out of Pocket...\$2,6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500 Lease Cash...\$1,500 Total Drive off...\$5,599 Term...36 Miles per Year...12,000</p> <p><b>\$109 Lease</b> per month plus tax</p>	<p>5 @ THIS PRICE</p> <p>Cash Out of Pocket...\$1,7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500 Total Drive off...\$3,199 Term...24 Miles per Year...12,000</p> <p><b>\$99 Lease</b> per month plus tax</p>	<p>VIN# NDU423702</p> <p>Cash Out of Pocket...\$2,8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Lease Cash...\$500 Total Drive off...\$4,299 Term...36 Miles per Year...12,000</p> <p><b>\$89 Lease</b> per month plus tax</p>

한인담당 Alex Shin  
CERRITOSHYUNDAI.COM

■ 믿음있는 세일즈맨 alex shin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no credit, bad credit, 유학생환영

■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있는 현대딜러

■ 최고의 가격을 보장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이 행사는 7월 24일 까지입니다.

Assurance

**Tel. 562.900.2399**

\*Special APR based on 36 month financing. Based on above average credit, must finance with HMF to qualify.

**HYUNDAI**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18818 Studebaker Rd  
Cerritos, CA 90703



COVERSTORY

“예배인도는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삶 그 자체”

3집 ‘하우피(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발표한 장종택 전도사



찬양하는 장종택 전도사의 모습

찬양사역자 장종택 전도사가 최근 세번째 라이브워십앨범 <하우피>를 발표했다.

‘하우피’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뜻으로, 장 전도사는 ‘Desperate Band’와 함께 ‘삶 가운데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 앨범에 담았다.

장 전도사는 미국의 CFNI(Christ For The Nations Institute)에서 수학했으며, 댈러스 영락장로교회의 예배 인도자를 거쳐 현재는 두레교회의 예배 인도자로 사역하고 있다. 대표곡으로는 ‘은혜로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이 주로 인해’, ‘생명과 바꾼’, ‘내 선한 목자 되신 주’, ‘내 삶 속에 주님이 없었다면’ 등이 있다.

<하우피>에는 ‘Call to worship’, ‘주를 더욱 알기 원하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Thank You Lord’, ‘은혜 때문에’, ‘여호와와 임재가’, ‘날 사랑

하심’, ‘내 삶 속에 주님 없었다면’, ‘내 맘을 알아주는 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믿음을 갖고서’ 등 신앙 고백이 담긴 찬양들이 수록됐다.

구리 두레교회에서 장종택 전도사를 인터뷰했다. 장 전도사는 “예배인도는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삶 그 자체”라며 예배인도자로서의 소명감을 드러냈다. 다음은 장 전도사와의 일문일답.

-<하우피> 음반을 제작하게 된 계기는.

“미국에서 한국에 왔을 때 통장잔고가 없었다. 가족의 생계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선배에게 식사를 대접할 3만원도 없어서 약속을 취소했다. 마음에 중만했던 은혜는 사라지고 초라한 모습에 불만이 올라왔다. 그런데 그 때 성령께서 ‘내 고백에 책임을 지

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시련에도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감사하겠다’는 고백에 대한 책임이었다. 바로 차 안에 들어가 홀로 예배드리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고백에 책임을 지고 순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마음을 담아 제작한 앨범이다.”

-수록곡 중 가장 감명받은 노래가 있다면.

“내 삶 속에 주님 없었다면”이란 노래다. ‘내 삶 속에 주님 없었다면/소망 없이 주저앉았을 텐데/하늘의 소망 주신 예수로 통해 나 거뜨히 일어나네/예수는 내 선한 목자 예수는 나의 피난처/예수는 나의 위로자 예수는 나의 모든 것’이라는 가사다. 예수님 주신 은혜로 다시 일어선다는 내



앨범 내지에 실린 장종택 전도사의 예배 일기

용인데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내 삶의 고백인데 다른 사람에게도 감정이 전달된다.”

-영감을 얻는 비결이 있는가.

“하나님 은혜는 만나와 같이 매일

새롭다. 그래서 매일 일기를 적고 예배 전 그것을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생생하게 떠오른다. 골방에 들어가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개인예배도 드린다.”

-최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라는 책도 쓰셨는데 소개 부탁한다.

“쉬운 말로 쓰인 목사의 내용들이 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신앙의 목상들을 적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다.

두레교회 황영진 예배 담당 목사님은 ‘일상이 감동이고 정직이 힘이고 순수가 능력이다. 참 당연한 말인데, 읽는 내내 눈물이 난다’는 소감을 쓰셨는데, 이 책을 잘 표현한 것 같다.”

신태진 기자

힐송, 7월의 정규 라이브 앨범 ‘글로리어스 루인스’ 출시

르우벤 물건, 조엘 휴스턴, 벤 필딩, 매트 크로커 등이 작사·곡



매년 7월에는 힐송뮤직의 라이브 워십 정규앨범이 출시돼 전 세계의 찬양사역자들을 설레게 한다. 올해 7월 발표된 앨범의 타이틀은 ‘글로리어스 루인스’(Glorious Ruins)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파괴, 몰락(Ruins)은 결국 철저한 낮아짐이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영광스러운 낮아짐’(Glorious Ruins)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르우벤 물건, 조엘 휴스턴, 벤 필딩, 매트 크로커 등이 작사·작곡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며 주축을 이루고 있다.

르우벤 물건은 “우리의 개인 예배와 공동예배, 친밀함과 축제는 예배의 본질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영광스러운 낮아짐’은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본질을 말한다.

매년 힐송의 앨범들은 한국교회 안에서 새 노래의 바람을 일으켜

왔고, 이 앨범 또한 새 노래의 기쁨과 힘을 선사할 것이다.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www.wciuproperties.com/

**Gold Finger**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전화주시면 출장 주문, 가봉 완성 후 배달

Business hour 8:00am to 7:00pm  
www.facebook.com/GoldFingerTailorLA

**골드핑거**  
남녀맞춤, 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Byung Ho Kim (Kyung Sik)

- 법무부 직업훈련원 감독위원 역임
- 서울지방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 한국복장기술경영협회 상임 이사
- 한국아트패션 회장
- 90년 한국남성복기술경진대회 창작 최우수상
- 94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상
- 95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상
- 대림 라사운영 1979-2000

맞춤 양복 이래서 좋습니다.

한울한울, 장인의 혼을 담은 맞춤 양복. 고객의 마음까지 담은 맞춤양복, AS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inex AUTO COLLISION CENTER**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컬러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려임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 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ko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보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전기 . 철공** 계단, 펜스, 창틀, 보조문

**용접, 게이트** 경남 철공소

**모터 수리**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닝정비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커피 미니 자판기 CoffeeTreeUSA**

따스하고 맛있는 커피를 저렴한 가격으로 간편하게 즐기세요.

밀크커피/한국차(유자차, 검은콩 울무차, 대추 생강차) 핫초코/카푸치노/블랙커피

T.213-272-7502 www.Coffeetreeusa.com  
1513 S. Victoria Ave Los Angeles, CA 90019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약,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전단지**

문의 : 213-739-0403  
기독교일보 광고사업팀

디자인에서 인쇄, 배포까지  
그냥 한번에 해 주는데 없을까?

교회 행사용 전단지, 브로셔, 교회배너..

**one stop**

MUSIC

‘꿈이 있는 자유’ 한웅재, 5년 만에 2번째 앨범 선보여



한웅재 목사의 공연 모습

한웅재 솔로 2집 ‘일상, 위로’가 출시된다. 정종원 목사님과 함께 듀오 ‘꿈이 있는 자유’ 활동을 병행하며 지난 2009년에 발표한 첫 솔로 앨범 ‘2nd step’ 이후 5년 만이다.

삶 가운데 스며든 생명의 말씀을 서정적인 음악을 통해 은유적으로 드러내며 대중과 평단 모두에게 찬사를 받았던 1집은 2집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졌고,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모두에게 오랜 목마름으로 남게 되었다. 물론 그 동안 ‘노래하는 시인’답게 ‘꿈이 있는 자유 7집’과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소소한 일상 특별한 만남’ 같은 책 출판을 통해 창작 활동을 지속해 왔지만, 솔로 아티스트 한웅재에 대한 해답에는 부족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나는 2집이지만, 먼저 호흡을 가다듬고 아티스트에 대한 고찰을 시도해 본다. 한웅재는 ‘시인’이자 ‘송라이터’이며 ‘포토그래퍼’이자 ‘작가’이고 ‘목사’다. 이런 다양한 캐릭터는 그의 음악을 이루는 중요한 구조이자 작품을 위한 모티브가

된다. 그는 일상의 피사체를 찰나의 순간에 담아, 작가적 시선으로 절제되고 축약된 표현을 더한다. 그 안에는 ‘목회자’로서, ‘아버지’로서의 관점도 공존한다. 시적 가사와 뛰어난 밀착성을 보이는 서정적 멜로디, 이를 극대화시키는 감미로운 목소리,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한 그의 노래는 텍스트와 음악, 그리고 목소리의 가장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완성된다.

“가을이 빛나는 건 여름을 봤기 때문이고 봄이 아름다운 건 겨울을 알기 때문이듯, 모두 다 그렇게 긴 시간을 지낸다...”(한웅재 2집 ‘모두 다 그렇게’) 중

이번 2집 앨범의 타이틀은 ‘일상, 위로’다. 이번 앨범 역시 반복되는 자연의 순리와 이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순응, 주님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소소한 일상의 모습을 관조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묵상으로 풀어낸, 순도 높은 곡들로 가득하다.

“지난 3, 4년간 위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내 노래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었구나 하

주님의 흔적 볼 수 있는 소소한 일상의 모습 바라본 ‘일상, 위로’

말씀과 삶에 대한 관조적 묵상, 깊은 성찰 묻어낸 미적 시어들 그리고 이를 감싸는 서정적인 멜로디... ‘일상에서 만나는 위로’

는 경험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자연스레 다음 음반은 위로에 대한 노래들이 나오겠구나 싶었는데, 생각 외로 쉽지 않았어요. 일부로 위로의 노래를 만들려니 원래 스타일에도 맞지 않고 뭔가 잘 풀려 나가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냥 내 일상을 적자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앨범에는 총 11곡의 창작곡이 수록돼 있다. 앨범의 시작을 여는 첫곡 ‘위로는 예수’는 2집 작업의 물꼬를 터준 출발선 같은 곡이다. 평범한 일상에서 세월의 참 의미와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연결한 곡으로, 앨범의 시작을 주제적으로 풀어가기 위해 던지는 화두(話頭)와 같다. ‘모두 다 그렇게’는 시인으로서의 언어 조각(彫琢)이 가장 두드러진 아름다운 표현들이 돋보이는 곡이다.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는 가슴에서 시작되어 손끝에서 그려지는 고백을, 질은 서정성과 함께 감미롭고 부드러운 멜로디로 그려낸 아름다운 발라드 넘버다.

“돌아가는 길은 1집에 수록된 탕자의 이야기인 ‘저 언덕을 넘어서면’의 바로 전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정오 우물가’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다. 이곡은 화자를 사마리아 여인으로 대비해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고 있는데, 이는 ‘꿈이 있는 자유 4집’에 수록된 ‘목수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든다.

“말에게는 ‘꿈이 있는 자유 1집’에 수록된 ‘하연이에게’를 연상시키는 곡으로, 가르침이나 강요가 아닌 아버지의 마음을 담백하게 표현한 곡이다. 앨범 마지막 곡 ‘나의 예배’는 스치듯 지나가는, 평범하고 새로운 것 하나 없는 일상이 나의 이야기이고, 그것이 예배임을 노래하며 일상에서 위로를 발견하는 짧은 여정이 ‘페이드아웃’ 된다.

이번 앨범에서는 그가 오랫동안 천착해 온 ‘일상에서 묵상을 통해’ 발견하는 메시지 본질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약간 무게감이 더해진 사운드의 높이를 경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젊은 뮤지션들과 함께 만든 1집보다 더 깊은 음악적 표현을 위해 노력했다.

“음반을 거듭 만들다 보면 늘 하게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즉, 나를 지키면서도 새로워져야 한다는 일종의 아이라니인데, 이번 음반은 시작부터 변화에 약간의 무게를 더 둔다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내슈빌 뮤지션들과의 협업은 처음에는 스트링 작업만을 위해 시작했다가 전체 작업을 함께 하는 것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동의해 줬습니다. 아마도 변화에 조금 무게를 두고 싶어하는 제 마음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과정은 순탄했습니다. 외국에서 작업하면 겪게 되는 어려움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내슈빌의 신배호 씨와 한국의

신영수 씨 두 사람의 협력으로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앨범에는 그래미상 수상자인 탐 험비(Tom Hemby)를 비롯해 블레어 마스터스(Blair Masters), 샘 레빈(Sam Levin), 내슈빌 레코딩 오케스트라 등 내슈빌을 대표하는 세션들이 함께했고, 내슈빌의 바비 신(Bobby Shin)과 오랫동안 호흡을 같이해온 신영수 등 두 명의 공동프로듀서를 세워 1집에 비해 풍성하고 좀 더 깊이진 사운드를 연출해냈다.

‘일상, 위로’에 담긴 곡들은 삶의 영역 전반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이며, 그 가운데 드러난 주님의 흔적을 찾는 과정이다.

수록곡 ‘처음으로’의 ‘복잡한 공식 지우고 비어 있는 칠판처럼, 나를 비우는’이라는 표현처럼, 과정을 통해 노래 속에 펼쳐진 일상에 대한 관조적 묵상을 따라가다 보면 아티스트가 전하고 싶은 우리 삶 가운데 놓여 있는 그분의 위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웅재 목사는 2집 발매 후 가을에 부산 공연을 준비 중이며, 이후 호주 투어를 통해 ‘일상의 위로’를 전하는 여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여기에 ‘꿈이 있는 자유 8집’에 대한 작업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라 하니, 팬으로서 벌써 그의 다음 행보가 기다려진다.

글=CCM 칼럼니스트 추연중

BIZ

소년이 흐른다구요?  
요실금, 방광염, 요로건강을 걱정하세요?  
식약청이 공인한 건강기능식품  
세종 요로정보감으로 해결하세요



“출시 6개월 만에 미 전역서 폭발적인 관심”

〈세종 요로정보감〉

출시 6개월 만에 최고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자리매김한 특이한 베스트셀러 제품이 있다. 요실금, 오줌소태(방광염), 빈뇨증, 전립선 이상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건강기능식품, 〈세종 요로정보감〉이 바로 그것.

한국 식약청(KFDA)의 공인된 제품만을 엄선해 공급하며 미국과 캐나다의 건강식품 전령사 역할을 하며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세종 바이오텍’ (대표 서민혁)에서 이번에 출시된 〈세종 요로정보감〉은 기존 크렌베리보다 100배 농축된 파크란 크렌베리

가 주성분으로 호박, 마그네슘, 비타민C 등을 포함한 신장, 방광건강 등 요로건강 전반의 기능개선을 위한 제품이다.

또한 요로 건강의 효능을 공식 인정받은 건강 기능식품으로 제품 박스에 한국 식약청의 인증마크와 효능이 표기돼 있어 누구나 믿고 구입할 수 있다. 이미 LA는 물론 뉴욕과 뉴저지, 시카고 등지에서 많은 이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세종 바이오텍에 따르면 〈세종 요로정보감〉은 하루 8번 이상 소변을

보거나 잠을 잘 때 2번 이상 화장실을 가거나 ▷방광염으로 인한 혈뇨, 소변 볼 때 통증이 있거나 ▷요실금으로 가벼운 자극에도 소변이 흐르거나 ▷출산, 비만 등 성인병의 이유로 소변 민감성이 큰 이들에게 특효를 보이며 전립선 비대증 및 남성 요실금에도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 가격은 2개월 한 박스에 195불.

▶문의: 세종바이오텍 (213) 383-8899  
▶웹사이트: www.sejongbiotech.us

아·이·토·크·비·비 iTalkBB 로컬/장거리/국제전화무제한... 집전화 요금 딱! 짚습니다! \$9.99/월... 지금 바꾸면 정답은 아이토크비비! 첫 3개월 무료... 미국 로컬·장거리 무제한 통화... LA 직영점 (코리아타운 캘러리아 304호) 213.559.7557 | 1.800.872.2902

www.phhyundai.com

북미 최대 한인 현대 딜러



# 푸엔테힐스 현대 SUPER STORE

# 독립기념일맞이 BIG EVENT



## 좋은이자율! 최상의 서비스! 현대를 만나는 가장 좋은 곳!

갖고 싶은 현대차를 가장 좋은 이자율로 모시고,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더욱 만족을 드립니다! 지금 만나보세요!

**2013 ELANTRA GLS**

**\$92 +TAX**

36 Month lease / 12k mile / T.D.O 2,999

MSRP \$16,890 (STK #398513)

LEASE CASH \$600	MILITARY REBATE \$500
COMP. COUPON \$500	COLLEGE REBATE \$400



**2013 SONATA GLS**

**\$123 +TAX**

36 Month lease / 12k mile / T.D.O 2,999

MSRP \$22,375 (STK #713499)

ROYALTY REBATE \$500	LEASE CASH \$1,000
COLLEGE REBATE \$400	MILITARY REBATE \$500



**2013 EQUUS ULTIMATE**

**\$599 +TAX**

24 Month lease / 12k mile / T.D.O 6,999

MSRP \$66,650 (STK # 051811) Demo

LEASE CASH \$1,000	COMP. COUPON \$1,000
COLLEGE REBATE \$400	MILITARY REBATE \$500



**다양한 차량과 색상 보유!**  
**자체 파이낸싱과 특별할인 프로그램!**

America's Best Warranty<sup>®</sup>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HYUNDAI	HYUNDAI	HYUNDAI
100,000	100,000	100,000
REASONS EVENT	MOTIVOS	



스티브 장  
626.513.4005



찰리 정  
626.513.4981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1-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